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6971.35 (+133.31)	894.29 (+38.38)	4.010 (-0.001)	1361.40 (+8.60)

트럼프 “韓서 2000억 달러 투자 역사적 에너지 인프라 협력 시작”

대미투자 프로젝트 구체적 윤곽
대형원전 8기에 총 1200억 달러 텍사스에 가스발전소 건설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형 원전(APR1400)을 포함한대형원전8기를 원전 종주국인 미국 내 건설하는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투입된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확정됐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정부 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무역합의 및 대미 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9월 30일 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외신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기금을 통해 텍사스 가스발전소, 8기의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역사적인 에너지 인프라 협력이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 한국형 APR1400 2기 美 첫 건설… AP1000보다 ‘우선 착공’ 우선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로 불리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라, 양국은 총 1200억 달러(건설비 1000억 달러, 예비비 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에 대형원전 8기(APR1400 2

기, AP1000 6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원자력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양국은 원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관련 국내 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양국 기업 간 타협협정(SA)에 따라 미국 진출이 막혀있던 한국형 노형APR14002기의 미국 건설이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해외 노형이 건설되는 첫 사례다. 이로써 양국 협약 과정에서 AP1000에 앞서 APR1400 2기를 우선 건설하는 순서를 확보해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미국 시장에서 입증하게 됐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재용 회장, 영국서 ‘KH컬렉션’ 민간외교
이재용(왼쪽 두번째)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열린 ‘KH컬렉션 순회전 갈라 디너’에서 앤 공주(왼쪽 세번째), 조지 오스본(왼쪽) 영국박물관 이사회 의장, 6·25 참전용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L6면> /삼성전자

지난달 수출액 1209억 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전년대비 84% 급증
올해 누적 수출액 8145억 달러
연간 1조 달러 1855억 달러 남아

지난달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의 압도적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1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 역시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남은 3개월 간 1855억달러 이상 수출 시 사상 첫 1조달러를 기록한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전

년 동월 대비 83.5% 급증한 1209억 4000만 달러(약 160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6월(1020억 달러) 기록을 세 달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56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전년 대비 26.0% 늘어난 71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98억 5000만 달러(약 66조 원) 흑자로 사상 첫 400억 달러 돌파이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

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 달러)을 불과 9개월 만에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의 꿈의 고지라 불리는 연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3개월 추세로 본다면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굉장히 유력하고 오히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10월부터 두 달 정도 1000억달러 달성시 11월말이나 12월 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계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수석 문신학

李 대통령, 고위직 인선안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국토부 제2차관에 정의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하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 정책실장은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

하준경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가를 받고 있다. 신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문 신임 수석은 관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정책 등을 담당해 왔다. 또 이 대통령은 관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 제2차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특보)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보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보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부정평가는 2%p 올라 50% /사진 뉴시스
▲민주당 35%, 국민의힘 25%…민주 4%p ↓, 국힘 동일

▲통일부, 北적반하장 담화에도 “평화공존 흔들림 없이 추진”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메가톤급 충격 받은 대구 정치권

▲괴물미사일 ‘현무’, 빛으로 드론잡는 ‘천광’…軍 첨단무기 선배
▲김정은, 中국경절 맞아 시진핑에 축전…“전략적 관계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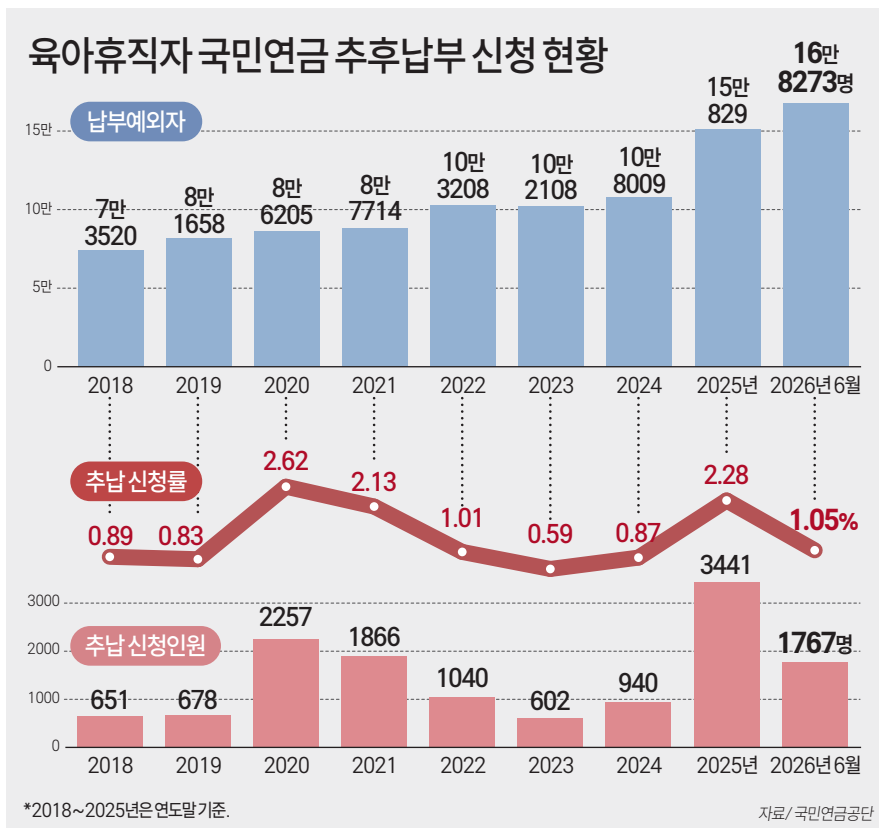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유명무실’… 100명 중 2명 신청

지난해 추납 제도 신청률 2.28%
낮은 인지도·높은 비용부담 등 영향
김주영 의원 “공단, 제도 홍보 필요”

육아휴직으로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게 해 가입 기간을 채워주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 기회와 수령액을 늘려주는 추납 제도 신청률이 2%대에 그칠 정도로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가 제도에 익숙치 않고,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추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김포시갑)이 지난 달 2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15만82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추납 신청 인원은 3441명으로 신청률은 2.28%에 그쳤다. 육아휴직자 100명 중 2명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 제도를 신청하는 꼴이다.

2025년도 추납 총 신청금액은 81억 3484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36만4092원이었다.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은 1.05%, 신청금액 40억 3768만원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납부예외자로 처리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일괄 정산돼 납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추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했다. 추납 제도는 별도 공단의 통지 없이 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별도로 추납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육아휴직자가 추납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휴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목돈 부담에 추납이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33)는 “육아휴직 후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보험료를 2배 내야 하는 것인데, 굳이 수백만원의 목돈을 납부해야 할 연을 이득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류 모씨(32)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육아휴직 후 추납할 생각까지는 안 해봤다”며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 제도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니 정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재직 중 회사와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내는 것과 달리 추납 시엔 노동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다. 일례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올해 기준 9.5%의 보험료율로 총 3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납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이자로 1년만 기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된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평균 추납 신청금액은 236만4092원으로, 일반 직장인이 한 번에 납부하기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선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육아휴직 중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가 유예되지만, 복직 후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육아휴직자에게 추납 제도와 추납 보험료 등을 설명해 육아휴직자가 추납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연금액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납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자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월 임금이 높을 때 추납 제도를 신청하고 2차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까지 인정받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자에게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목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가전업계, 원가 급등… ‘프리미엄·구독’ 대응

삼성 AI·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
LG 2분기 구독사업 매출 5% ↑

인공지능(AI) 서버수요가 밀어올린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가전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범용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TV와 생활가전의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구독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9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 4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6달러로 전월보다 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전월 대비 0.4% 오른 30.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 압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10~15%, 15~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4K TV에 주로 탑재되는 4GB DDR4 계약가격도 최근 1년 새 4배 이상 뛰면서 TV 제조원가(BOM)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5~3%에서 6~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8월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도 주요 부품과 원재료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영(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평균가격은 올해 상반기 전년 연평균 대비 2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DX부문의 전체 원재료 매입액도 전년 동



삼성전자 OLED TV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 삼성전자

기 대비 6.3% 증가한 41조5392억원으로 집계됐다.

LG전자도 TV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의 영상기기 부품용 칩 평균가격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연평균 대비 37.4% 상승했다.

반면 상반기 삼성전자의 TV·모니터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평균가격은 전년 연평균 대비 약 4%, LG전자의 LCD 모듈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1.4% 각각 하락했다. 패널 가격 하락은 TV 제조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BOE와 TCL CSOT, HKC 등 중국 주요 패널업체들이 국경절을 전후해 감산에 나서면서 4분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가 부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TV·생활가전 사업을 포함한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는 지난 2분기 매출 14조5000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양사는 고부가 제품과 구독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

전자는 AI·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기존 ‘AI 구독클럽’을 ‘삼성 AI 구독’으로 개편했다. 신혼·1인·시니어 가구 등 고객층별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공공기관과 호텔·의료·금융 등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업간거래(B2B) 구독도 새로 선보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불륜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과 구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분기 구독사업 매출은 6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TV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광고·콘텐츠 기반 webOS 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제품에 생산능력을 우선 배분하면서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TV와 생활가전은 원자재와 물류비 등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공급망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3차 ESS 중앙계약 1180MW ‘역대 최대’ 배터리 3사, 소재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

생산 확대·소재 공급망 확충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 기반과 소재 공급망을 확충하며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수주 경쟁에서는 국내 산업 기여도와 화재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만큼 국내 생산과 소재 조달 능력에 안전 기술을 더한 각사의 공급 역량이 물량 확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공고한 3차 ESS 중앙계약시장 물량은 육지 1100MW와 제주 80MW 등 총 1180MW다. 앞선 1·2차 사업의 공고 물량이 각각 540MW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일 공고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이 풀리면서 배터리 3사는 고객사와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수주에 대비한 생산과 소재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1·2차 사업에서 경쟁사보다 적은 물량을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과 소재 국산화를 앞세워 수주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2027년부터 연간 1GWh 규모의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수요에 따라 생산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도 국내 공급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는 포스코퓨처엠과 장기 공급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을 앞세워 이번 입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SS 솔루션에는 배터리 이상을 사

전에 감지하는 소프트웨어와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일체형 ESS 솔루션 ‘SBB 2.0’이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시험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공장은 앞선 1·2차 사업에 공급하기로 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삼원계 배터리의 생산 거점이다. LFP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는 지난 3월 엘앤에프와 체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통해 2027년부터 3년간 공급받기로 했다.

SK온도 국내 생산라인 전환과 소재 확보를 통해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서산공장의 기존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연산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을 최대 6GWh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산라인 전환에 맞춰 국내 양극재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엘앤에프와 약 160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포스코퓨처엠과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내 생산과 소재 조달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과 화재 안전성을 알리거나 확보하느냐가 수주 물량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



metro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강남 꺾여도 외곽이 떠받친다

종전 최장기보다 상승폭 2배 이상
전셋값 오르며 매매시장도 자극
공급 부족·유동성이 상승세 뒷받침

규제로 매물 줄어 가격 조정도 제한
당분간 전세·외곽 흐름이 핵심 변수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최장 상승기보다 집값이 오른 폭도 두 배 이상 크다.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전주 0.13%보다 상승폭은 0.04%포인트(p)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종전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이전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연속 상승이다. 지난주 85주로 종전 기록과 동률을 이룬 데 이어 이번 주까지 상승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상승 속도도 전보다 가파르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간 서울 아파트값의 누적 상승률은 약 17.6%다. 종전 최장 상승기 85주의 7.71%보다 약 2.3배 높다.

다만 상승 탄력은 점차 약해지는 모양



서울 강북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낮아지다 9월 넷째 주에 0.09%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을 키우며 각각 -0.56%, -0.19%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0.37%에서 -0.33%로 낙폭이 다소 줄었지

만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산구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1% 낮아졌다. 9월 첫째 주 0.10%에서 둘째 주 0.07%, 셋째 주 0.02%로 상승폭이 작아지더니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대문구가 0.4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6%, 노원구가 0.34%, 강북구는 0.31% 올랐다.

다만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세가 이어져 전체 상승률을

끌어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장기간 오르는 배경으로 공급 부족과 유동성, 거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장기간 집값이 오른 원인에 대해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라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에서 불안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랐다. 올 들어 9월 셋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00%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가 전세로 계속 사는 데 드는 비용과 주택을 사는 비용이 비슷해진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쪽으로 이동할 경우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서 교수는 “임대차보호법과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규제 등이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물량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거래 규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기에는 은행을 시작으로 도봉·강북·성북·노원 등 외곽 지역이 먼저 하락한 뒤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먼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곽 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며 전체 상승률을 떠받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과거 최장 상승기와 현재 시장은 상승 배경과 범위가 다르다”며 “종전 최장 상승기와 달리 지금은 금리 수준이 높은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이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곽 지역도 상승폭은 점차 둔화할 수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고려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숨을 고르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하며 공급 부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다만 공급대책이 실제 물량을 늘리기가 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전세가격과 외곽 지역의 상승세, 유동성이 서울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 교수는 향후 시장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긴축 재정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한미, 텍사스 223억弗 발전소 첫 투자

» 1면 ‘대미투자 프로젝트…’서 계속

알래스카 LNG, 상업성 전제로 검토

아울러 웨스팅하우스(WEC)의 AP 1000 건설에도 한국 시공·기자재 기업이 우선 참여하며, 한국 기업의 WEC 소수 지분 인수 및 SA 개정도 추진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해 “1978년 고리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파트너로서 미국 본토에 원전을 짓게 되는 쾌거”라며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텍사스 엔시날 1호 착공… 알래스카 LNG ‘정치적 발표’엔 이의 제기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주 라살 카운티 엔시날(Encinal) 지역의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6472MW(기본 5GW, 예비 전력 1.5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글로벌 개발사리레이티드(Related)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NextEra)가 주도하며,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가동이 목표다. 양국은 기자재,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를 포함한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알래스카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및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 알래스카 LNG)’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미 측은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 관세 인화와 장기 구매계약(offtake)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확정적 발언에 대해서도 러트니측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측 우려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기준은 단 하나,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그게 안되면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도 이날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사업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이 최우선’… 5:5 수익배분 등 안전장치 마련

정부는 이번 투자가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식과 달리 전체 프로젝트를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로 묶어 리스크를 분산(Risk-pooling)하고, 한국이 원리금을 완수할 때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도록 했다.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송금 한도도 법적 계약에 명시했다.

한편, 미 측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기 중인 마스가(MASGA) 펀드 등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및 선박금융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합의했다. 미 측 규제 완화를 전제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미국상선 및 군함 등 선박 사업에 1500억 달러 한도가 직접 활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용대출 1.3조 빠지며 가계대출 감소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 상승
마통 금리도 추가 오름세 전망
고신용자도 대출 문턱 높아져
은행권, 연말까지 관리 강화 예상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금리가 오르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만큼 다음 달에도 대출 문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8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82조1192억원)보다 1조2352억원 감소했다.

이번 가계대출 감소세는 신용대출이 주도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8월말 109조5718억원에서 지난달 말 108조2303억원으로 1조3415억원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액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1조2730억원에서 621조3982억원으로 1252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대출 금리까지 오르자 수요층이 감소했다고 분석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연 5.01%로 지난 1월 4.76%보다 0.25%포인트(p) 올랐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Chat GPT이미지

초고신용자로 평가되는 신용점수 951~1000점 차주의 평균금리도 1월 연 4.68%에서 7월 연 4.95%로 0.27%p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지표금리인 금융채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상승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는 지난 1월 평균 3.51%에서 7월 3.29%로 0.22%p 낮아졌다. 반면 금융채 6개월물(AAA) 금리는 1월 말 2.793%에서 7월 말 3.259%로 0.466%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을 느끼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차주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규 및 기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기준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3.800%로 지난 8월말(3.471%)보다 0.329%p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시차를 두고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 신용한도대출 평균 신용점수도 6월 962.6점, 7월 961.2점으로 꾸준히 960점을 상회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뿐 아니라 900~950점대 고신용자도 대출신청서를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마이크론이 확인한 AI 메모리 호황… 삼성·SK 기대감 ‘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
마이크론 매출, 전년대비 379% 늘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실적 견인
내년 1분기 매출 최대 630억弗 제시
증시 훈풍, IT 국한… 반도체 쏠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같은 AI 메모리 호황의 수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79% 상승한 27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3.21% 오른 183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반도체 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2026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이 542억2900만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3.31포인트(1.95%) 오른 6971.3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38포인트(4.48%) 오른 838.41,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내린 1358.4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 /뉴시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30.8%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437억5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36억5400만달러에서 1097.3%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32.3%에서 80.7%로 크게 높아졌다.

실적을 이끈 것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였다. 데이터센터 사업부 매출은 180억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4배 증가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5%에서 85%로 급등했다.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매출도 162억8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분기 전망에서도 이어졌다. 마이크론은 2027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600억~630억 달러로 제시했다. 중간값인 615억달러는 시장 예상치인 570억2000만달러를 약 7.9% 웃돈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는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과도 맞물린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애널리스트 3명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287개 종목의 3분기 지배순이익 추정치는 19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

비 214.1%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익 증가가 증시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IT 업종 순이익이 15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은 94조5000억원, SK하이닉스는 59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두 회사의 순이익을 합치면 153조6000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78%에 달한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IT에 국한되며, IT가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분의 96%가 IT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섹터의 기여도는 모두 합쳐도 4%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전체 순이익 규모도 향후 1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2026년 4분기 364.4%로 정점을 찍은 뒤 2027년 1분기 83.8%, 2분기 9.1%로 점차 주춤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 이익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순이익 증가율도 함께 낮아지는 모습이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업종의 순이익 증가율은 2026년 하반기 200.0%에서 2027년 상반기 61.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모멘텀 제한 가능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중심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AI지만, 이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산업 역시 AI”라고 판단했다. AI 투자로 인한 고금리 부담의 구축효과도 비(非)AI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막힌 투자 뚫고 현장 애로 해소”… 7.9조 기업투자 손질

이형일 경제부총리·재경부 장관
비상경제본부·경제장관회의 주제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단축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정부는 인허가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기업투자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합계 8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진전이 더딘 데 대한 해소 대책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가 있지만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총리,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종욱 관세청장. /뉴시스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각종 영향평가를 전(全) 단계에서 동시에 착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전 컨설팅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이달 중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높이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3조 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

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현재 두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역시 추가 설치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변경허가를 몰아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 상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편 이후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총 8%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

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 명의 펀드에 적립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대 전환 전략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네덜란드 홍수 등으로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대표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올해 수출이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수상태양광 3GW로 늘려 농업용수 부족분 2000억 채울 것”

농어촌공사 CEO 간담회

김인중 사장, 수상태양광 사업 계획
2030년까지 28개 지구서 추진
년 270억 수익서 7~8배 늘릴 것

수상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가 본격도에 올랐다. 2030년까지 전국 각지의 거대 담수호·저수지 등 수면을 활용한다. 28개 지구에서 도합 3기가와트(G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김인중 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분명 일조

한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30%)에 한참 미달한다.

하지만 공사의 제1 목적이 재생에너지 생산 자체에 있지는 않다. 발전 수익의 대부분이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등에 쓰인다고 했다. 이처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자원 마련이 추진 배경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이다.

공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매해 2000억원가량 부족하다. 김 사장은 농어촌공사에 접수되는 농업인들의 주요 요구 사안을 언급했다.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및 운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 탓에 이

같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육상태양광 등을 통한) 누적수익이 연간 270억원인데 향후 3GW까지 늘려 수익을 7~8배 정도로 늘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원) 부족분 2000억원을 채워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발전 사업자, 공사 등 3자 간 이익의 균형을 꾀한다. 그간의 사업자 중심 수익 구조가 아닌, 33%씩 나누는 ‘3대 3대 3’ 모델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설치면적 관련해서는 저수지 수면의 최대 10%, 담수호 수면의 20%라는 비중 상한을 둔다고 했다. 이로써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북 김제 소재 새만금33센터에서 수상태양광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어촌공사

다. 또 수위계측 및 안전관리 등을 꾸준히 실시해 저수지 기능의 악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김 사장은 “공급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지역주민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만 “환경적 측면, 도시 기능적 측면 등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사전에 받아, 큰 문제가 없다면 면적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사가 펴낸 분석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모듈은 빛돌이나 순수한 물로 세척한다. 수질오염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녹조발생 위험도 없다. 자외선 차광이 되기 때문에 녹조를 도리어 저감하는 효과를 낸다. 어류 산란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태양광 모듈을 쓰기 때문에 중금속 유출 위험도 없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 TV·노트북·진공청소기가 배출하는 전자파보다 수치가 낮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김제=김연세 기자



metro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중수청 초대 수장에 김지용… 여권 반발에도 임명 수순 돌입

李, 여권 일각 반발로 추가 검증 지시
“결격사유 없어, 청문회 소명 기회”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오늘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일 “금명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권 일각의 거센 반대 의견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쳤지만, 인선을 철회할 정도의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추천위는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4명을 추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운데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 및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

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 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및 채널A 사건 처리 등을 들며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성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가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파악했다. 또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는 ‘절차적 하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

건은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지만, 당시 서울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했다고 파악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김 후보자의 경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채널A 사건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면서 “탄약 하위임을 알면서도 흡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준비 안 된 중수청… 졸속 출범 강행”

중수청 앞서 현장 의원총회

국민의힘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출범 준비가 미흡한 중수청을 ‘강통’에 빗대며 졸속 출범을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60명 이상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쓰인 영정 형태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죄 인사를 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수청은) 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강통 중수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압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강통 중수청, 강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기 와 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수장인 중수청장도 공석이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

이다. 이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 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중수청 1차, 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 봐야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수청은) 출범하자마자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찰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중립성·독립성에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남북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지속”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자주국방·스마트 강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남북이 대치 국면인 가운데,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 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레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 DMZ에서 지뢰 사고 피해를 당한 장병들을 향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자주국방’과 ‘강한 국군’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국방 개혁과 스마트 정예강군 도약 등 강군 혁신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며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재차 밝혔다.

/서예진 기자

산안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입법은 담보

산업재해 반복 사업장 제재 강화
부동산 법안, 여야 이견으로 처리 지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는 머뭇거리는 한편, 산업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막판에 입장을 선회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벌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저회로서는 이 법을 미룰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 주장이 과징금에 캡(상한)을 씌우자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

업이 얼마되지 않고 10여개가 안되는 기업을 보호하자고 이를 미루자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 표결 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시공능력 2위의 모 건설사는 2020년 중대재해로 인해 등록말소 대상”이라며 “땀흘려 가족의 생계를 잇는 현장 건설노동자 수만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치다”며 “경제를 견인하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은 350조원과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업장에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면 그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며, 정도와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부과한다. 기준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라며 “마치 수 천억원, 수조 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두 달 가까이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지 못해 담보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서 처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도 1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의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에도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이 반이 감지되자 8·17 전당대회 전부터 민생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힌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쟁점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몇 차례 순연시켜 정국교외 처리가 가능할 지도 우려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건희 컬렉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된 이건희 컬렉션은 이제 워싱턴DC와 시카고를 거쳐 런던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관람객들과 만나며 한국 문화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가꾸고 후대에 전하는 신념... 여러 세대가 지켜온 원칙

삼성은 9월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특별전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개막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를 개최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문화유산 보존과 나눔의 철학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이병철 창업회장이 문화유산을 가꾸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으며 이건희 선대회장은 이를 이어 평생에 걸쳐 작품을 수집하면서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고대와 현대 작품을 아우르며 컬렉션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저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2천 년에 걸친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2021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2만3천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주요 작품들이 전시된다.

워싱턴D.C.에서 시카고·런던으로... 기증한 문화유산을 세계와 공유

특히 이번 전시는 미국 워싱턴DC와 시카고에 이어 세계적인 문화도시 런던으로 무대를 옮겨,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첫 해외 순회전에는 약 8만 명이 방문해 최근 10년간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가운데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다.

체이스 로빈슨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은 이번 순회전을 선구적인 수집가로 소개하며, 유족의 국가 기증 역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증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열린 시카고 전시에는 워싱턴DC보다 40% 이상 늘어난 약 11만5천 명이 방문했다. 미국 두 도시에서만 총 19만5천 명이 관람하며 한국 미술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해 2009년 문을 연 시카고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동 ‘모던 윙(Modern Wing)’에서 개최된 첫 아시아 미술 특별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국보 7건과 보물 15건을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유산과 박수근·김환기 등 근현대 주요 작가의 작품까지 총 140건 257점을 선보이며 한국 미술 2천 년의 흐름을 폭넓게 소개했다.

미국에서 열린 첫 해외 순회전은 이번 컬렉션을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것을 넘어 K팝과 영화·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전통문화와 미술로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열린 이번 런던 순회전은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K-컬처의 외연을 세계로 넓히는 무대가 됐다.

한국 문화와 예술의 오랜 역사... 영국박물관에서 만나는 주요 작품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영국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전시는 이번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의 오랜 역사와 창의성을 유럽에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영국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영국박물관 전경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까치와 호랑이 © 국립중앙박물관

갈라 디너에 240여 명 참석... 한·영 오랜 인연 되새겨

갈라 디너에는 영국 정·관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 등 240여 명이 자리해 한국 문화유산과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갈라 디너 인사말을 통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로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과 영국은 140여 년 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80여 년 전 영국과 첫 인연을 맺은 삼성은 지난 50여 년 동안 영국을 유럽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아 성장해 왔다.

삼성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 사업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제 정선, 인왕제색도 © 국립중앙박물관



전(傳) 덕산 청동방울 일괄 © 국립중앙박물관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투갑창과 꺾창 © 국립중앙박물관

“저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이번 전시가 2천 년에 걸친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AIA생명 새 수장에 中 출신 리오 응… ‘보험손익 회복’ 과제

중국법인 CFO 등 30년 이상 경력
AIA생명, 상반기 당기순익 78% ↑
‘급감’ 보험손익, 투자손익으로 상쇄
신계약 CSM·K-ICS 비율 시험대

AIA생명이 리오 응(Leo Ng) 중국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보험계리 전문가를 차기 수장으로 낙점했다. 상반기 순이익 증가를 이끈 반면 보험손익과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지급여력비율은 뒷걸음친 만큼 리오 응 내정자의 첫 시험대는 보험 본업과 신계약, 자본건전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최근 리오 응 AIA중국 CFO를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필요한 승인 절차가 끝난 뒤 정식 취임한다.

리오 응 내정자는 지난 2016년부터 AIA중국 CFO를 맡아 왔다. AIA 근무 12년을 포함해 생명보험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에서 보험수리학과 통계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보험계리사협회 정회원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리오 응 AIA생명 차기 대표이사. /AIA생명

◆ 투자손익 세 배로 늘며 순익 견인

AIA생명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59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9억7600만원보다 76.7% 증가했다. 하지만 이익의 구성을 보면 보험 본업과 투자 부분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보험손익은 428억원에서 39억원으로

90.9% 급감한 반면 투자손익은 536억원에서 1735억원으로 223.7% 늘었다. 투자손익 증가분 1199억원이 보험손익 감소분(389억원)을 상쇄하고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셈이다.

보험손익 감소에는 보험서비스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보험수익은 6204억원에서 6263억원으로 1.0% 늘었지만 보험서비스비용은 5135억원에서 5724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 간 차이는 1069억원에서 539억원으로 축소됐다. 재보험서비스 부분의 적자 폭이 줄었지만 보험서비스 부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했다.

미래 이익 기반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CSM 잔액은 1조58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상반기 신계약에서 발생한 CSM 증가 효과는 1433억원에서 1126억원으로 21.4% 감소했다. 전체 CSM 잔액은 유지됐지만 신규 계약을 통한 CSM 유입 규

모는 줄어든 것이다.

다만 영업채널 전반이 악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IA그룹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변경 영향을 제외한 한국법인의 신계약가치(VONB)는 전년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K-ICS 176.4%까지 하락

자본건전성 관리도 주요 과제다. AIA생명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지난해 말 204.6%에서 올해 3월 말 192.9%, 6월 말 176.4%로 하락했다. 반면 동안 28.2%포인트(p),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1.4%p 떨어졌다.

상반기 지급여력금액은 3조382억원에서 2조8985억원으로 1397억원 감소한 반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은 1조4850억원에서 1조6431억원으로 1581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계약 가정 변경 등으로 가용자본이 줄고 요구자본은 늘어난 결과다.

AIA생명은 K-ICS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해도 176.4%는 지난 6월 말 생명보험사 평균인 193.0%보다 16.6%p 낮다. 다만 금융당국 권고 수

준인 130%는 웃돌고 있어 당장 자본건전성 위기로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추가 하락을 막으면서 성장과 자본 여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험계리사이자 장기간 중국법인의 재무전략을 담당한 리오 응 내정자의 이력이 주목받는다. 피셔 장 AIA생명 이사회 의장도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AIA중국 CEO를 맡아 리오 응 내정자와 중국법인 경영진으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일한 만큼 그룹 전략과 한국법인 경영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리오 응 체제의 성적표는 순이익 증가세 자체보다 보험손익과 신계약 CSM, K-ICS 비율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리오 응 내정자는 “최우선 과제는 임직원, 고객 및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경청하고 배우는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앞으로의 중요한 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한항공 제휴카드 발급 절차 까다로워진다

마일리지 이용고객 정보 관리차원
스카이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KB국민·하나카드 등 변경사항 공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국내 카드사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자체 마일리지 서비스 회원가입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고객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겠다는 대한항공 측의 조치에 따라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카드·하나카드·NH농협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대한항공 제휴카드 발급 신청 방법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변경 사항의 핵심은 카드 발급 대상이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회원 제도인 스카이패스(SKYPASS)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제휴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카드사가 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스카이패스 회원가입을 대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제휴카드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카이패스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한 뒤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의 조치에 따라서다. 대한항공은 최근 스카이패스 회원 정보와 카드사 회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휴카드 발급 절차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카드사와 항공사 간 고객 정보의 불일치나 중복 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통상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카드사가 신규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휴사 멤버십 가입 동의를 함께 받는다. 이후 고객의 기존 멤버십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휴

사에 전달한다.

다만, 카드사와 항공사 간 기존 회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진다. 카드사가 고객의 신규 멤버십 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회원번호를 선발급하고, 이후 기존 멤버십 계정이 확인되면 신규 발급된 회원번호를 기존 계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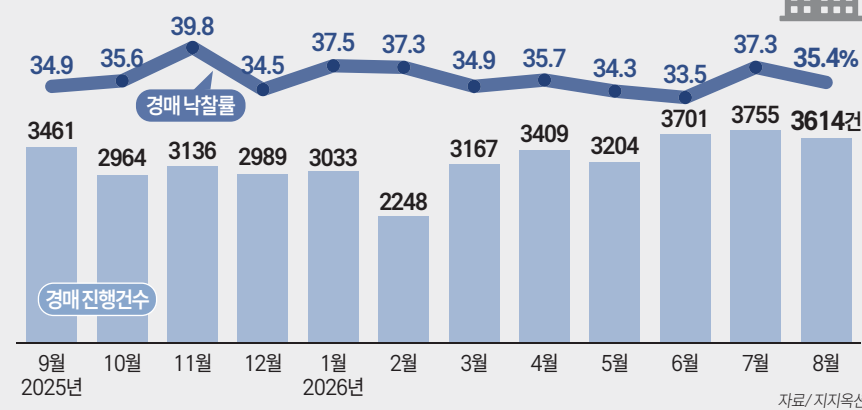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측이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아닌 제휴사의 멤버십 제도 변경 자체에 따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드 발급 과정에서 직접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부 고객의 불편도 예상된다.

소비자 이모 씨는 “요즘 카드는 전화 한 통으로도 다 발급이 되는데, 마일리지 제휴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오라고 하면 과정이 귀찮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며 “특히, 회원가입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경우 카드 발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와 낙찰률



‘경기둔화’ 부동산 경매, 4년만에 54% ↑

대법, 2026 사법연감

기준금리 인상·전세사기 증가 영향
서울 9.7% 줄고 비수도권 13.2% 늘어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후유증이 부동산 경매시장에 쌓이고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늘었다. 지방과 비아파트는 매각도 쉽지 않다. 채무 정리와 보증금 회수가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수는 12만126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만8885건보다 53.7%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세사기 후유증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찰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신청한 경매는 2024년 7101건에서 지난해 1만1663건으로 64.2% 증가했다. 전체 경매 접수율의 9.6%다. 법원은 사건 증가에 대응해 전국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올해 1월 411개로 늘렸다.

지역별 차이도 눈에 띄었다. 올해 1~8월 서울의 임의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1594건으로 9.7%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926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2% 늘었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 등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근거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집값과 거래가 반쳐주는 수도 권은 경매 전에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여지가 있지만 매수세가 약한 지방은 처분이 어려워 채무 부담이 크다.

전세사기와 신용대출 연체 영향을 받는 강제경매는 서울에서도 늘었다. 올해 1~8월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서울 414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7%, 지방은 2644건으로 31.3% 증가했다.

특히 비아파트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경매 진행은 2만100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8.9% 늘었다.

늘어난 경매가 꼭 집값 하락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부터 매각까지 시차가 있고, 진행건수에는 유찰돼 다시 입찰에 부쳐진 물건도 포함된다. 다만 매각이 지연되거나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금융기관과 HUG의 채권 회수 부담이 커진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입찰인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전 X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의 많이 늘고 있다”며 “낙찰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성채리 기자 cr56@

가상자산 日 거래액 3.1조… 반년새 44% ↓

FIU,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평가총액도 87조→59조 33% 줄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반년 만에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위축 여파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이익도 80% 가까이 급감했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

으로 지난해 하반기 5조4000억원보다 44% 감소했다.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도 지난해 말 87조2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58조9000억원으로 33%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소에 보관된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거래 위축은 거래소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81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748억원보다 78% 급감했다. 매출도 같은 기간 41% 줄었다. 반면 거래 가능한 이용자

계정은 1117만5000개로 지난해 말보다 4만9000개(0.4%) 증가했다.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 보유한 계정도 826만개에서 863만개로 37만개 늘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중북을 제외하고 673종으로 지난해 말보다 39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34종으로 집계됐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가운데 40%인 93종은 평가총액이 1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글로벌 철강사 美 투자 줄이어 2030년 전후 공급과잉 ‘경고음’

韓·日·인도 등 주요기업 투자 발표
현지 진출로 고율관세 리스크 돌파
“고부가제품 중심 경쟁력 높여야”

미국의 고율 관세를 계기로 글로벌 철강사들의 현지 투자가 잇따르면서 2030년 전후 공급 경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된 가운데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메사비메탈릭스가 아이오와주에 150억달러(약 20조4000억원)를 투자해 대형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아사르그룹 계열사인 메사비는 미네소타에서 채굴한 고품위 철광석 펠릿을 활용해 직접 환원철(DRI)·전기로(EAF)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오는 2030년 연산 750만t 규모로 상업생산을 시작해 최대 10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도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한다. 오는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용 180만t과 일반용 90만t의 열연·냉연·도금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본제철도 지난해 US스틸 인수 과정에서 총 140억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 인프라 등에 110억달러를 투자하고 신규 제철소 건설에 최대 4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확정된 37억달러는 기존 US스틸 생산거점 개보수와 비커버스틸의DRI·고급강판 설비 보강 등에 집중됐다. 아르셀로미탈도 앨라배마주에서 연산 150만t 규모의 전기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으로 투자가 몰리는 배경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현지 생산의 사업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이후 3개 분기 동안 유럽연합(EU)의 대미 철강 수출은 34%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사비 투자 발표 당시 “50% 관세 부과 이후 철강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모두가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산업연구 이재운 연구원은 “미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

이 단기간에 설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현지 시장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 완제품 철강 소비의 18%는 수입산이다. 문제는 신규 설비가 집중가동되는 2030년 전후다. 미국 연간 생산량의 약 10%인 메사비의 최대 1000만t을 비롯한 증설 물량을 수요가 흡수하지 못하면 가격과 수익성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도 공급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메사비 투자 발표 당일 미국 철강사 뉴코어 주가는 1.1% 하락했다. 미국 매체 24/7 Wall S.t.는 메사비의 신규 제철소가 뉴코어와 클리블랜드·클리프스 등 기존 업체에 가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생산거점을 주요 수요처로 두고 있어 메사비 등 신규 설비와는 수요 기반에 차이가 있다.

이재운 연구원은 “세부 품목별 수요를 정교하게 살피는 동시에 생산능력 확대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그룹, 고속도로 충전 인프라 고도화

도로공사 MOU… 피지컬 AI 실증도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도로공사와 전국 고속도로의 차세대 충전 인프라와 피지컬 AI 기술 실증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30일 서울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에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기반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및 피지컬 AI 기술 연구·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실의 인프라에서 차세대 충전 기술과 피지컬 AI 기술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휴게소를 충전 신기술의 거점으로 삼는 ‘고속도로 휴게소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이 투자한 스타트업과 연계해 피지컬 AI 기반 고속도로 안전 유지관리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현대차그룹의 사업 경험과 도로공사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미래 도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 후 현대차그룹이 개발·운영 중인 관수·보안·배출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 정호근 부사장이 지난 달 30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기반 차세대 지능형 충전 인프라 및 Physical AI 기술 연구·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이를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정호근 미래전략본부장(부사장)은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도로공사가 보유한 전국 고속도로 인프라는 현대차그룹의 충전 기술은 물론 제로원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피지컬 AI 기술까지 대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 원통형 배터리 북미 공급 확대

인디고테크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 상용차 스타트업 인디고테크(indiGO Tech)와 손잡고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북미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전기 상용차에 배터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차량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을 병행해 북미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디고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인디고테크는 물류·배송과 차량 호출 서비스 등에 활용할 전기 상용차를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인디고테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 상용차 ‘플로 라이드(Flow Ride)’와 ‘플로 카고(Flow Cargo)’ 등에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셀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공급계약 협의를 함께 진행거리 연장과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디고테크는 차량 개발에 필요한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46시리즈 공급 실적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북미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46시리즈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성환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전기 상용차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46시리즈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국내외 칠러 생산 확대… 1500억 투입

美 공장 신설·국내 설비 고도화 추진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 강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칠러(chiller)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국내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글로벌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칠러부터 액체냉각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미국 공장 신설과 국내 생산라인 증설 및 생산설비 고도화에 총 15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칠러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미국 버지니아주 윈저에 연면적 3만2000㎡, 부지면적 17만㎡ 규모의 칠러 생산공장을 구축한다. 신규 공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에 주로 공급되는 공랭식 칠러를 생산할 예정이다. 칠러는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데이터센터 등의 열을 식히는 핵심 냉각 설비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칠러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용 칠러 시장은 지난해 8억4100만달러에서 올해 8억9180만달러, 2033년 14억505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해 전체 시장 매출의 56.6%를 차지했다. 옴디아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올해 226기가와트(GW)에서 2030년 420GW로 늘고, 이 가운데 60%가 북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가 버지니아주에 생산거점을



LG전자 고성능 칠러 등 냉각 솔루션이 적용된 가상의 AI데이터센터 이미지.

/LG전자

마련한 것도 북미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버지니아주는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데이터센터 벨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LG전자는 현지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LG전자는 평택과 창원 공장에 공랭식 칠러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첫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하나의 컨베이어에서 진행하는 흐름라인 생산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흐름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러 생산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칠러부터 냉각수분배장치(CDU),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하는 플레이트까지 연결하는 ‘칩 투 칠러(Chip to Chiller)’ 솔루션을 갖추고 관련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CPU와 GPU

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만큼 발열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LG전자는 공랭식·수랭식 냉각 솔루션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전력 인프라 솔루션까지 결합해 데이터센터 고객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북미에서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는 계열사 역량을 결합한 ‘원(One) LG’ 전략으로 사업 기회를 넓힌다.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이 자카르타에 구축 중인 초거대 AI 데이터센터에는 LG전자의 냉난방공조기술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LG CNS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 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 이재성 ES사업본부장 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지속 강화해 급증하는 시장 수요를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2 시리즈 공개

어도비 포토샵 기본 탑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2’에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로 어도비 포토샵을 탑재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과 문서 작업 기능도 강화해 콘텐츠 소비 중심이던 태블릿의 활용 범위를 업무와 창작으로 넓힌다.

삼성전자는 1일 ‘갤럭시 탭 S12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2+’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오는 7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인다.

신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포토샵 탑재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포토샵이 기본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대화면과 S펜에 맞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해 PC 없이 이미지 편집과 드로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도 포토샵에 적용했다. 어도비의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Firefly)’



갤럭시 탭 S12 시리즈.

/삼성전자

를 활용해 이미지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울트라 모델은 14.6형 화면과 5.1mm 두께를 적용했다. 동영상 재생 기준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23시간이다. 갤럭시 탭 S12+는 전작보다 화면을 키웠으며 최대 21시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출고가는 갤럭시 탭 S12 울트라가 189만9700원부터 시작하며 갤럭시 탭 S12+는 154만9900원부터다.

/구남영 기자

전통시장·지방상권에 소비 집중… 外人·관광객 이용 넓힌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전통시장 사용 땀 총 10% 혜택
지방 골목상권은 총 8% 적용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앱 연동
지역관광·가맹점 기준도 손질
※ “상인 매출 키울 마중물”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만에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한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시 5% 할인+사용후 5% 환급’을 통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총 8%)은 수도권 골목상권(총 5%)보다 할인·환급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리페이’ 등 각 나라에서 사용하던 결제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수도권보다 취약한 지역 상권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난달 14일 대구 중구 i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행사’에서 참석자가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가 2009년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종이)형과 디지털형이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3조9500억원)의 65%(2조6000억원)는 전통시장에서 소비됐다. 현재 디지털온누리 앱 가입자 수는 186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선환인율을 7%에서 5%로 낮추고 실제 이용처에 따라 차등환급 혜택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지방 내 생활상권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

권을 쓰면 총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우 지방과 수도권 간 소비 환급 혜택에 차등을 뒤 지방 골목상권에 선 5% 선환인에 3% 환급(총 8% 혜택)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소비 환급 혜택이 없다. 다만 지류형은 특성상 소비처 파악이 어려워 선환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취약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와 가맹점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점포 15개(인구감소지역은 10개)만 모여도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었지만 시군·구 재정지립도에 따라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20%는 20개 이상, 하위 25% 또는 시

장 반경 1km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낮은 점포 밀집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누리가맹점 등록·갱신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가맹 적합 업종에서 병의원·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 업종을 뺐다. 다만 약국은 노년층 접객 효과를 감안해 가맹을 허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처럼 온누리상품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중기부 김경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 가맹점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소급 적용하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법하게 받은 가맹 유효기간 3년을 인정해 준다는 법리 하에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절반 가량은(매출액 기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관광을 유도할 수 있게 연계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

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과 인근 유망 관광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행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체계도 구축한다. 약 40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알리페이는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위치를 네이버·카카오의 영어 지도 앱에 표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 1200억원을 배정하고,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적용 대상을 내년 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상생배달앱이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예산도 25억원을 편성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수단을 넘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테슬라·中 자율주행 확장… 상용화 가속

테슬라, 300억달러 신용한도 확보
中업체, 로보택시 해외 운행 확대
국내선 양산차 자율주행 적용 추진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차량 운행과 양산 적용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슬라는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늘리며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양산 승용차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총 3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신용한도를 확보했다. 올해 250억달러 이상의 설비투자를 예고한 테슬라는 AI 연산 인프라와 생산시설 등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 신용한도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자금은 아니며 회사는 올해 이를 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사업 확대와 함께 안전기준 대응도 과제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지난



강남구 일대에서 SWM.ai가 운영 중인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KGM

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운전대와 패달이 없는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을 상업배치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후 사이버캡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다고 자기인증한 근거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업체들은 운행 규모 확대와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멘타는 현재 3개국에서 1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백 대, 2027년 수천 대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

해 독일 뮌헨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등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유럽, 일본 등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포니AI는 지난 6월 말 기준 로보택시 197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버와는 유럽에서 2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완전무인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도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범위가 로보택시에서 양산 승용차로 넓어지고 있다. 라이드플렉스는 지난달 30일 KG·현대모비스 등과 협약을 맺고 KGM 차량에 현대모비스의 SDV 플랫폼과 자사의 AI 자율주행 솔루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로보택시·로보트럭 중심에서 완성차 B2B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레벨2+부터 향후 완전무인 레벨4까지 적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승혁 기자 sh95@

최우각·박동석 대표 ‘자랑스러운 中企人’

崔, 초정밀 기술로 27개국 수출 확대
朴, 숙련기술 향상·교류 활성화 기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가 2026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와 박동석 피에스디이 대표를 선정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성하이텍은 1~2미크론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확보해온 초정밀 부품 전문기업으로, 1997년 일본 야마자키 마작과의 첫 거래를 시작으로 현재 27개국, 70여개 글로벌 기업에 8000여 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우각대표는 반도체·공작기계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

박동석
피에스디이 대표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부품 확장 4대 성장축’으로 ▲방산 ▲로봇 ▲AI 데이터센터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박동석대표는 글로벌 수출기업협의회 회원과 기능한국인(제185호)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숙련 기술인의 기술향상과 상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60년 냉난방 기술 새 광고 공개

배우 지진희와 신규 기업 PR 전개

귀뚜라미가 대한민국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60년 냉난방공조 기술을 새로운 광고 캠페인으로 선보인다. 귀뚜라미그룹은 전속 모델인 배우 지진희와 함께 신규 기업 PR 광고 ‘K-핵심산업 중심에 60년 냉난방 기술’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2년부터 보일러 전문 기업에서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도약한 모습과 확장된 사업영역을 대중에 알리는 기업 PR 광고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냉난방공조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조명

하며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광고는 ‘귀뚜라미 60년 냉난방 기술’이라는 핵심 가치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주요 산업과 연결해 귀뚜라미그룹의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표현했다.

광고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꾸며진 전시대를 둘러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각 전시대에는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발전소, 잠수함 등 K-핵심산업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함께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귀뚜라미의 냉난방공조 기술이 생동감 있는 3D 영상으로 펼쳐져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김승호 기자

대전 ‘D-성장펀드’ 540억 규모 출범

중기부, 전북·울산 이어 세 번째 조성
모태펀드 350억 등 민관 공동 출자

세번째 지역성장펀드인 ‘대전 D-성장펀드’가 54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열린 ‘대전 D-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대전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대전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되는 지역성장펀드인 대전 D-성장펀드는 3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해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 한국과학기술원(KAIST),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행복에너지, 지엔소프트 등이 출자자로 참여해 총 54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한다.

대전 D-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지방정부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

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8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대전시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대전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도시 특화펀드를 만든다.

이미 모펀드가 결성된 전북, 울산 지역 성장펀드는 10월말 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대경권 지역성장펀드와 서남권 지역성장펀드는 각각 10월말, 11월 초에 모펀드를 결성해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앱 꺼도 업무는 계속… 빅테크, 능동형 AI 에이전트 경쟁

오픈AI ‘닷츠’, 앱 종료 후에도 능동적 연구하고 필요사항 전달

메타 ‘뮤즈’, 정보 기억해 먼저 제안 현재 공식 제공 지역에 韓 미포함

스페이스X ‘그록봇’, 여러 AI 협업

메타와 오픈AI, 스페이스XAI가 사용자의 목표를 기억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일을 이어가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생활 정보를 기억해 제안하는 메타 ‘뮤즈’, 업무 변화를 살펴 보고하는 오픈AI ‘닷츠’, 여러 비서가 협업하는 ‘그록봇’이 대표적이다. 국내 이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무료 제공과 기존 구독 연계 등 유료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닷츠(dots)’를 공개했다. 이용자가 만들어 쓰는 개별 에이전트는 ‘닷(dot)’이라고 부른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 8일 ‘뮤즈’를 선보였다. 두 서비스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터와 브라우저를 활용해 앱을 닫은 뒤에도 맡긴 일을 이어가도록 설계됐다.

뮤즈는 여행 예약과 이메일 발송부터 장기 목표 관리까지 지원한다. 메타는 인



오픈AI의 AI 비서 ‘닷’ 초기 대화 화면. 대화하지 않을 동안에도 필요한 일을 살피고 새로운 소식이나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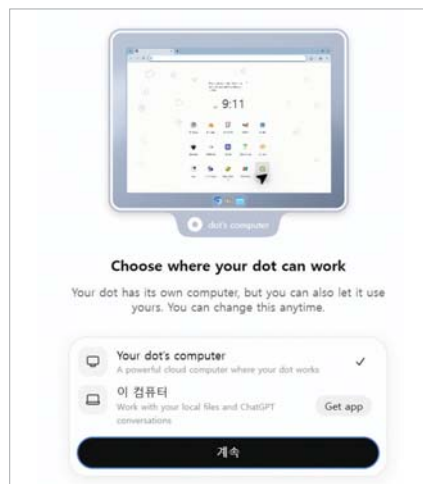
스타그램에 저장한 요리 영상을 장보기 목록으로 바꾸거나, 친구의 식사 제한 사항을 기억해 모임 메뉴를 제안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번 언급한 정보를 기억해 별도 요청 없이 제안하는 방식이다.

테크 유튜버 네이트 허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부모님이나 기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추천한다면 아마 뮤즈를 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닷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기타 사항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며 기존 챗GPT·코덱스 이용 환경과의 연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닷츠는 고객 의견을 살펴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시험하거나, 새 연구 자료에 맞춰 분석을 갱신하는 기능을 내세운다. 진행 상황과 질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메시지로 전달한다. 이용자가 작업 중이지 않을 때 연결된 앱을 살피는 ‘능동적 연구’는 읽기 전용 도구를 사용한다. 이용자는 특정 행동을 허용·차단하거나 승인을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단테랩스’를 운영하는 단



오픈AI 닷츠(Dots) 설정 화면. 닷츠 전용 클라우드 컴퓨터와 이용자 컴퓨터 중 작업 공간을 고를 수 있다. /챗GPT 화면 캡처

테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맡겨서 알아서 챙겨준다는 점은 확실히 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어 음성이 아직 조금 어색했다”, “진행 상황 잘못 보고했다가 스스로 정정한 적들도 좀 있었다”며 사용 과정에서 발견한 한계도 짚었다.

스페이스XAI의 ‘그록봇’은 이메일 관리와 경비 처리, 오류 수정 등 역할을 나눈 여러 AI가 동시에 일하고 업무를 넘기는 기능을 강조한다. 사용자가 업무 과정을 보여주면 반복 절차로 저장해 일정에

맞춰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중단된 일을 다시 챙기거나, 사용자의 요청 전에 업무를 찾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즈의 공식 제공 지역에 현재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닷츠는 현재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처음 생성할 때는 데스크톱 앱이나 웹을 사용해야 한다. 그록봇은 한국 앱스토어에서 배포돼 유료 계정의 이용 자격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유료화 방식도 다르다. 뮤즈는 무료로 시작해 주간 사용량 1억 토큰을 제공하고, 유료 구독으로 사용량을 늘리는 구조다. 닷츠는 월 100달러부터인 챗GPT 프로와 비즈니스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 포함됐다. 닷과의 대화는 챗GPT 사용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닷이 실행하는 코덱스·챗GPT 워크 작업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엔터프라이즈는 별도 계약 요금이 적용되며 관리자가 닷 시험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록봇은 월 30달러인 슈퍼그록이나 월 20달러인 커서 프로 등 기존 구독에 포함되며, 한도 초과 사용분은 커서를 통해 청구된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KT, 병원 맞춤형 ‘의료 표준모델’ 공개

예약부터 진료행정 등 AI 지원 의료진 진단·판독까지 확장 계획

KT가 병원의 수요에 맞춰 통신·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의료 표준모델’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21%다. 2024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KT가 의료 표준모델을 선보인 것이다.

의료 표준모델은 ▲AI 환자 어시스턴트 ▲간호 스케줄 에이전트 ▲수술실 스케줄 에이전트 ▲진료행정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됐다.

AI 환자 어시스턴트는 AI 음성봇이 24시간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서비스다. 증상을 분류해 예약 접수를 돕고, 퇴원 뒤 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KT는 내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KT 직원이 병원 관계자에게 ‘의료 표준모델’을 설명하는 모습. /KT

1분기에 의료 지식 기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간호 스케줄 에이전트와 수술실 스케줄 에이전트는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영상, 검사·연구 데이터를 모아 저장하고, 의료정보 교환 표준에 따라 표준화·연계한다. 이를 통해 의료 데이터 검색, AI 학습용 데이터 구

축, 의료 AI 개발·검증 환경을 지원한다.

진료행정 에이전트는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 대화를 인식·분석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진료과별 서식을 반영한다. 의료진이 확인·승인하면 전자의무기록과 검사·처방 시스템에 연동된다. 진료기록 작성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는 행정업무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의료 전문 파트너사의 제품과 AI 인프라를 결합해 의료진의 진단·판독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영역까지 표준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의료 전문 파트너사의 제품에 자사 데이터 플랫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래픽처리장치(GPU) 컴퓨팅 등의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예시로는 환자의 임상·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지침과 치료 근거를 제시하는 ‘AI 암진단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검사 중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내시경 판독’을 들었다.

/김보민 기자

SK AX, 임직원 AI에이전트 개발·사용 교육

‘AI 부트캠프 바이브’ 프로그램 선행 모든 직군 4주간 바이브코딩 실습

SK AX가 코딩 지식이 없는 임직원도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AI 부트캠프 바이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브코딩을 가르친다. 바이브코딩은 원하는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개발 조직뿐 아니라 인사·기획·마케팅·영업 등 모든 직군이 대상이다. 교육 기간은 4주다. 교육생은 AI 부트캠프 플랫폼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하며 AI 에이전트 설계 과정을 배운다. 이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직접 만든다.

실습부터 과제 제출, 평가까지 전 과정이 AI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마다 전담 멘토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배정

된다. 교육생은 AI 멘토의 안내에 따라 채팅창에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구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I 멘토는 교육생의 진도와 이해도, 실수 패턴 등을 기억해 용어 설명이나 코칭 수준을 조절한다.

개발 과제는 교육생이 자신의 실제 업무를 분석해 선정한다. 먼저 업무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를 찾는다. 그중 AI 적용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교육생이 만든 AI 에이전트를 회사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SK AX가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컨텍스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컨텍스트 오퍼레이터를 통해 사내 이메일이나 데이터 공유·저장소 등의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 동료들과 AI 에이전트를 공유할 수도 있다. /김보민 기자

네이버웹툰, 김용수·김규남 공동대표 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리더십 개편 연장선

네이버웹툰이 김용수·김규남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CEO는 한국 법인 대표에서 물라나 글로벌 사업과 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한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법인인 네이버웹툰은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전사 차원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1일자로 대표이사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프레지던트와 김규남 최고관리책

임자(CAO)가 선임됐다. 김용수 공동대표는 기존 프레지던트 역할과 네이버웹툰 대표를 겸임한다. 김규남 공동대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서 CAO로 직책을 변경하고 네이버웹툰 대표를 함께 맡는다.

이에 따라 김준구 CEO는 네이버웹툰 대표이사 겸임을 끝내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과 CEO 역할에 집중한다. 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 지역 법인의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단행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리더십 개편의 연장선이다.



김용수 김규남
네이버웹툰 공동대표 네이버웹툰 공동대표

당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프레지던트 직책을 신설하고 최고전략책임자(CSO)였던 김용수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김준구 CEO가 장기 성장과 미래 전략에 집중하고 김용수 공동대표가 사업 운영 효율화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최빛나 기자 vitna@

美 제너럴 애틀랜틱과 ‘맞손’

LG CNS가 글로벌 투자회사 제너럴 애틀랜틱과 손잡고 기업용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LG CN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제너럴 애틀랜틱 본사에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신균 LG CNS 사장과 마틴 에스코버리 제너럴 애틀랜틱 공동 사장 겸 글로벌 성장 자산 총괄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제조·금융·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용 S

W·AI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IT 서비스와 AI 전환(AX) 사업에 더해 기업용 SW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SW 자산을 확보해 라이선스와 구독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기반을 넓히고, 사업 구성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확보한 SW 기술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IT서비스·AI 전환과 SW를 연계한 사업도 확대할 구상이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보민 기자

성준엽 대표 “전 세계 어디서든 하나의 플랫폼으로 투자”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미래에셋, 주식앱 밖으로

MAPS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

홍콩 MAPS에 토큰 플랫폼 개발
그룹 ETF 토큰화 우선 검토
채권·펀드·단기금융상품도 대상

“토큰화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상품의 접근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상품 토큰화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월 홍콩에서 선보인 ‘MAPS’는 홍콩·미국·한국 주식과 디지털자산에 하나의 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홍콩 법인은 이 플랫폼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상품까지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성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채권 세일즈맨드레이딩(S&T) 업무를 맡았다. 이후 싱가포르법인 대표를 거쳐 현재 홍콩 법인을 이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은 MAPS를 토큰화 사업의 기반이자 개인 자산관리 사업 확대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

◆그룹 ETF부터 검토…외부 토큰화 상품도 유통 구상

성 대표가 토큰화 대상으로 먼저 제시한 것은 미래에셋그룹의 ETF다. 채권과 펀드, 단기금융상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MAPS내 토큰 플랫폼 서비스도 개발 중이며, 현재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4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고 토큰화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셋이 직접 발굴한 상품 뿐 아니라 외부에서 발행한 토큰화 자산도 다룰 방침이다. 성 대표는 “미래에셋은 자산 발굴부터 토큰화,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발행된 우수한 토큰화 자산도 MAPS를 통해 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토



홍콩 미래에셋증권 본사 입구.

/미래에셋증권

큰화 증권 취급에 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왔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성 대표는 “홍콩은 미래 금융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쌓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운영 경험과 토큰화 자산 구조화 역량이 향후 한국과 다른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경쟁력이 될 것으로 봤다.

토큰화와 디지털자산이 현재 우선 추진 분야라면,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는 중장기 과제다. 성 대표는 향후 AI를 결합해 고객 맞춤형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에서 개인으로…준고액자산가·MZ세대 주목

토큰화 사업과 함께 홍콩법인이 키우려는 또 다른 축은 개인 자산관리다. 성 대표는 “그동안 홍콩법인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비즈니스에 강점을 갖고 있었다”며 “MAP

S출시는 개인 고객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기관 영업에 더해 개인 고객에게 글로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관리(WM)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객 범위는 중산층부터 초고액자산가까지로 잡았다. 이 가운데 성 대표는 준고액자산가와 MZ세대를 미래에셋 3.0 전략에서 주목하는 고객층으로 꼽았다. 여러 시장의 주식과 ETF, 디지털자산을 살펴보는 고객에게 투자상품과 정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투자자의 성향도 서비스 방향에 반영했다.

성 대표는 홍콩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자산군과 시장을 비교하며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일 상품보다 글로벌 분산 투자, 한국 투자,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중

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이어 국내 MTS에도 MAPS라는 이름이 적용됐다. 성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각국의 앱 이름을 맞추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에셋이 보유한 상품과 리서치, 디지털 서비스 역량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마다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글로벌 고객이 어디에서든 동일한 투자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브랜드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거래 서비스를 뜻하지는 않는다.

성 대표는 홍콩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미국 주식과 한국 ETF에 접근하고, 향후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자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취득 여부와 상품 적격성, 판매 제한 규정에 따라 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플랫폼은 하나지만 현지화된 서비스는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 대표는 미래에셋이 지향하는 모습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고객이라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금융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홍콩에서 추진하는 토큰화 서비스와 개인 자산관리 사업은 그 구상을 실제 고객과 상품으로 연결하는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콩=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I가 투자정보 찾고 자산관리까지 돕는다

미래에셋증권 ‘MAPS’ 개편 장중 흐름, 2시간 간격으로 요약 디지털자산·美비상장주식 정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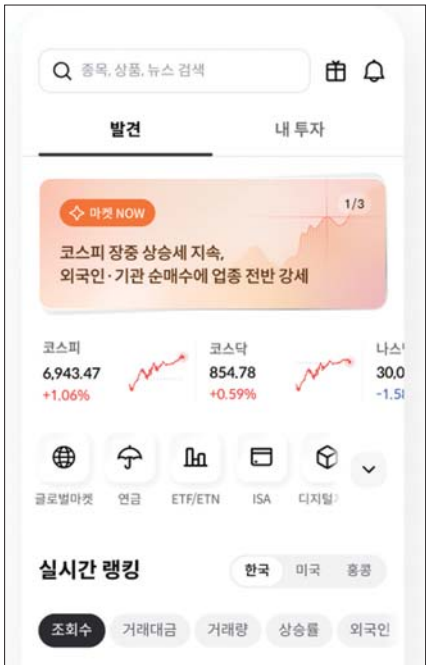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의 명칭을 MAPS로 변경하고 통합 투자 플랫폼으로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MAPS는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다. 고객이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 방향을 점검한 뒤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난 6월 홍콩법인에 이어 한국 시장에 두 번째로 적용됐으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미래에셋 3.0’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은 미래에셋증권 출범 초기 고객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했던 전문가를 MAPS라고 부른 데서 가져왔다. 당시의 자산관리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투자 기회 탐색과 보유자산 점검을 연결하는 데 있다. 홈화면을 ‘발견’과 ‘내 투자’로 구성해 발견에서는 시장 흐름과 주요 지수, 주도주, 상장지수펀드(ETF), 금융상품 등을 살펴보고, 내 투자에서는 자산 현황과 보유 종목,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중 흐름을 2시간 간격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AI 서비스 ‘마켓Now’도 도입했다. 현재가 화면에는 시세 추이를



미래에셋증권 ‘MAPS’ 화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간편 차트를 제공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탭을 중심으로 화면 구조를 정비했다.

투자 정보의 범위도 넓었다. 신설한 디지털자산 메뉴는 시장 정보와 시세를 제공하는 ‘마켓’,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금융산업, 전문 리서치 자료를 담은 ‘인사이트’로 구성했다. 나스닥 프라이빗마켓(NPM) 등 미국 비상장주식 시세 정보 제공해 상장 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개편한 ‘MY자산’과 보유·관심 종목 중심의 정보 서비스 ‘투자NOW’에 이번 기능을 더해 자산 확인부터 정보 탐색,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강

화한다는 구상이다.

AI 자산관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공하는 ‘AI 이슈체크’, ‘AI 사업요약’, ‘AI 투자브리프’와 마켓Now에 이어 상담·업무 및 자동주문 AI 에이전트, 포트폴리오 진단·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웰스테크, 랩어카운트, 모델포트폴리오(MP) 구독, 주식모으기 등 기존 서비스도 한곳에 모아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제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 목표는 능동형 자산관리 체계인 ‘Agentic WM’이다. AI가 고객의 투자 목표와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투자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투자 판단과 실행은 고객이 통제하되, 앱에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도 전담 AI 에이전트와 전문 어드바이저가 함께 자산관리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MAPS는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원칙을 AI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고객이 잠든 시간에도 자산은 일한다”는 방향 아래 AI Everywhere와 Agentic WM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MAPS를 확장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발행

금융위,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시장·투자한도 등 요건 구체화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와 발행인의 자본요건을 두고 업계의 완화 요구가 제기돼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 대상과 분산원장 요건, 계좌관리기준, 유통시장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에 비금융자산·금융자산·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했다. 토큰증권 활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기존 자본시장 상품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통시장에서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융자산·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매 수효는 크지 않지만, 토큰화를 통해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로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했다.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썬GPT로 생성한 이미지

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함께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계좌관리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상시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산원장이 증권의 권리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 기준을 낮추거나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석탄발전 2040년 완전 폐지… 원전·재생에너지 적절 활용”

기후부 출범 1주년 간담회

김성환 장관 “기후위기 해결 위해 에너지 대전환·순환형 경제 핵심”

2035 NDC 맞춘 전력수급 계획 수립
수송·난방·산업 전반 전기화 속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지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건물·산업 등 사회 전반의 전기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출범 첫째 성과가 미흡했던 녹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 체계는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석탄 발전은 2040년까지 마무리하고 원전은 적절히 잘 섞고, 재생에너지 100GW”를 추진하겠다고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후부는 규제와 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흥의 조화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과 순환경제를 순환형 경제로 바꾸는 일이 핵심 과제”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로 보면 기존 환경과 기존 에너지는 분리되거나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현재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NDC 목표를 세웠고 12차 전기본을 통해 상응하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 와

중”이라며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력망 접속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망 수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설비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되 전력 과공급 시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을 도입해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GW 규모의 하수·지연 사업 접속권을 정비하고, 배전망 비용 투자 주체를 한국 전력공사로 전환해 전력망 수용량을 송전

기준 최대 171GW, 배전 기준 110GW까지 대폭 늘릴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수송·난방·산업 전반의 전기화도 속도를 낸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고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2%에 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버스·트럭·농기계·건설기계·선박까지 전기화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캐즘이 있었지만 신차 전기차 비중이 24%로 높아졌다”며 “내년은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높아지고, 트럭과 특수차량도 하고 있다”며 “농기계, 건설기계, 배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생소했던 난방 전기화도 히트펌프를 올해 초 보급했는데 심리적으로는 대세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대배출 5대 업종의 구조를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용량

을 추가 확보하고 러브버그 대응 및 순환 경제 전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으나, 녹조 대응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미흡한 것도 많다”며 “특히 녹조 계절관리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강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물의 유통도 높여서 국민들이 ‘녹조도 해결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부산 물 대책도 약간 진전이 있다”며 “대구는 낙동강 복류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과제로 짚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이 문명의 대전환과 같으니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족한 것은 이후에 전문가, 시민사회와 최대한 소통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를 책임지는 기후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단일불포화지방산 함량 높은 토종닭 달걀”

농진청, 토종닭 활용 범위 확대
프리미엄 달걀 생산·유통 체계 구축

토종닭을 고기에 더해 달걀 생산에 쓰기 위한 농가 보급체계가 구축된다. 씨닭 공급과, 사육, 품질관리, 유통까지 아우르는 토종닭 달걀이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농진청은 1일 자체 개발한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달걀을 고를 때 가격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와 친환경 등 생산 방식과 품질을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토종닭의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달걀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토종닭 산업은 백숙과 삼계탕 등 고기용 중심이었다. 이에 여름철만 소비가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축산과학원은 토종닭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여러 계통을 단계적으로 교배하고 산란 능력을



(왼쪽부터)산란용 토종닭과 일반란의 난황색 비교.



/농진청

검정해 달걀 생산에 적합한 교배체계를 확립했다.

조 원장은 “통상 산란 농장에서 입식하는 닭의 경우 20주령부터 정상적인 알을 낳기 시작한다”며 “육용계를 산란용으로 개발했음에도 약 21주령에 산란을 시작해 일반적인 산란 능력이 우수한 산란계에 뒤지지 않는 성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산란계가 연간 약 250~300개의 달걀을 낳는 데 반해, 기존 육계용 토종닭은 150개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개량을 통해 산란 능력을 일반 산란계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달걀 성분에서는 일반 달걀보다 노른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단일불포화지방산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란용 토종닭 달걀의 평균 난황 무게는 16.27g으로 조사됐다.

맛 측면에서도 일반 달걀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감칠맛을 좌우하는 아스파르트산이나 글루타민산 등의 함량이 일반 산란계보다 높다”며 “풍미와 고소한 맛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달걀 껍데기도 일반 산란계의 진한 갈색이나 흰색과 달리 밝은 색을 띠고 개체별로 미묘한 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연구 성과를 실제 농가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씨닭 공급부터 사육·품질관리·유통까지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ESG 경영 강화

한국ESG 학회와 ‘맞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 부문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공단은 1일 한국ESG학회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사회’영역 내 산업안전보건의 가치를 표준화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협업한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간다.

공단은 그간 쌓아온 산재 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는 이를 토대로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연구 성과를 공단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평가를 표준화하고 정밀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또 학술대회와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 중심의 ESG 경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공단의 전문 데이터와 학회의 다학제적 연구 역량을 결합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고문현 회장은 “대한민국 ESG경영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자원공사, 기후테크 기업 지원 공로 인정

‘조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혁신제품 초기 판로·해외 수출 뒷받침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내 물·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과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최고 포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3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국내 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로 뒷받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공사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단순 국내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시범구매사업에서 수자원공사는 기업별 맞춤형 해외 실증 대상지와 현지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국내 혁신 기술을 현지 수요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는 결실을 거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거제 수해지 등 현장 방문

안정적 전력공급·재난 대응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현장경영 강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거제 수해 복구 현장을 비롯해 백령도 등 도서지역과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잇달아 방문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재난 대응, 미래 에너지 신사업을 챙기는 전방위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지난 9월 28일 경남 거제시의 극한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전력설비 복구 현황과 임시전력 공급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거제

지역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호우로 전주·변압기 등 203건의 설비 피해와 2504호의 정전이 발생했던 곳이다. 한전은 당시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해 정전 가구의 97%를 하루 만에 정상화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인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월 배전철탑의 자연재해 취약요인을 살피고, 거제지사 직원들과 만나 복구 과정에서의 작업 안전 개선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사장은 앞서 여수, 백령도, 신안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별 전력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현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확인했으며,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한전은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연간 호당 정전시간 9분대, 송배전 손실률 3.5%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태풍·폭염 등 기상 악화 속에서도 연인원 23만 여 명의 전력인이 24시간 전력망을 지켜온 결과라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재난지역과 도서·오지 지역 국민도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전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상아 제작 CGV 픽처스 울(G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울(GAL) 15세이상만람가

절찬상영중

오키마담2



한국 교육 수준 OECD 1위인데… 고용·임금은 평균 이하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71.1%
고용률은 39개국 중 36위로 하위
교육 수준-노동시장 성과 간극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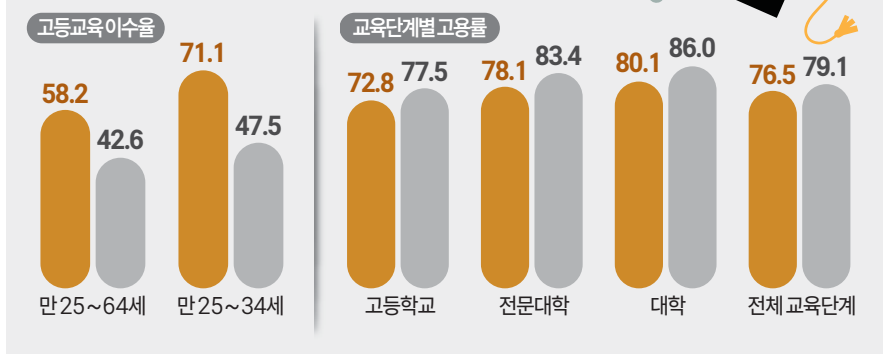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만큼의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과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모두 OECD 평균을 밑돌면서, 높은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확인됐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OECD 교육지표 2026'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교육 참여 및 성과 등을 비교했다.

◆10명 중 7명 고학력…OECD 1위

지난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

고등교육 이수율과 교육단계별 고용률

2025년 기준. 한국 OECD 평균 단위: %



장 높았다. OECD 평균(47.5%)을 23.6%포인트(p) 웃돌았으며, 전년(70.6%)보다도 0.5%p 올랐다. 캐나다(67.7%), 아일랜드(66.8%)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20년 69.8%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OECD 1위를 이어왔다.

성인 전체 고등교육 이수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만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2%로 전년(56.2%)보다 2.0%p 상승했다. OECD 평균 42.6%와 비교하면 15.6%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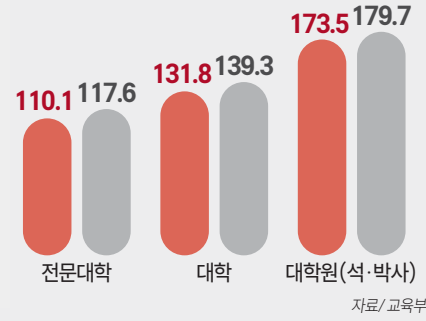
학력 분포는 학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34세 가운데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비중은 49.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2위였다. 석사 학위 이상은 3.2%에 그쳐 OECD 평균 16%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고용률, 국제 평균 이하

고용 성과는 이수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만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p 낮았고, 순위는 조사 대상 39개

교육단계별 임금

한국 OECD 평균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 2024년 기준



국 가운데 36위였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78.1%로 OECD 평균 83.4%보다 낮았다. 전체 교육단계를 합친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p 오른 76.5%였지만, OECD 평균(79.1%)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72.8%, 전문대학 졸업자는 78.1%, 대학 졸업자는 80.1%였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됐지만, 각 교육단계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고학력 청년의 비경제활동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경제활동률은 16.8%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였다.

◆교육 수준 높는데 임금은 낮은 편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학력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교육수준별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상대임금을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임금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024년 기준 상대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1, 대학 졸업자 131.8, 대학원 졸업자 173.5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각각 117.6, 139.3, 179.7로 한국보다 높았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만 25~34세 대학 학사 학위자의 상대임금은 114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14%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은 131로 같은 연령대 학사 학위자의 임금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31% 높았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논술 경쟁률 48대 1… 수시 지원자 절반 몰려

대학 평균 경쟁률 전년비 4.7p 올라
시립대·성신여대 등 내일부터 시험

주말부터 수시 논술고사가 시작된다.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이 48대 1을 넘어선 가운데, 수시 일반전형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논술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결시 여부가 실제 경쟁 구도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43.45대 1)보다 4.69포인트(p) 오른 48.14대 1로 집계됐다. 모집인원 1만 2723명에 61만 2510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수시 전체 지원자의 54.1%에 해당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 인원을 합친 비중(45.9%)과 비교하면 논술전형으로 지원자가 크게 쏠린 셈이다.

지원자가 몰리는 배경에는 학생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올해는 N수생 증가와 현행 입시 체제 마지막 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장의 모습.

/뉴스시스

시험 시점에 따라 서로 경쟁률에 차이를 보였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수능 이전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업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논술전형의 실제 경쟁률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빠지면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7학년도 논술고사는 오는 3~4일 서울시립대·성신여대·홍익대를 시작으로 10일 연세대, 11일 가톨릭대(의·약학 제외)

와 중앙대(창의형)가 시험을 치른다. 연세대(미래)·울지대·단국대·상명대·서경대도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상명대·서경대·울지대는 국어와 수학의 단답형·서술형 문제를 내는 악술형 논술이다.

수능(11월 19일) 이후 첫 주말인 11월 21~22일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14개 대학, 이어 28~29일에는 경북대·부산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일반) 등 15개 대학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다. 12월 6일 국민대·아주대·인하대 시험을 끝으로 올해 논술고사 일정은 마무리된다.

/김수정 기자

학교 소통 문화 만든다… ‘마음동행’ 운영

교육부, 교육공동체 참여 행사
영상 제작·학부모 정책 제안 등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학교생활의 경험을 나누는 참여 행사가 열린다. 자율 규약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것부터 정책 제안 공모전까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국 학교 자랑’은 학교와 가정의 함께 정한 자율 규약을 실제 학교생활에서 실천한 사례를 공유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학교의 자율 규약 체결 내용과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하면 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20개 학교에는 간식 상자를 제공한다.

‘마음동행 함께읽기’는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10월과 11월 진행된다. 참가자는 추천 도서를 읽은 뒤 인상 깊은 구절이나 감상평, 독서 인증 사진 등을 함께 학교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학교별 독서 활동과 인증 내용에 따라 ‘다독상’과 ‘마음상’을 선정한다.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도 연다.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학급 별로 10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자율 규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거나 소통과 협력을 보여주는 영상, 주제에 맞는 뮤직비디오 형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출품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SNS에 게시한 뒤 다음 달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연결 주소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함께학교상’ 15개 작품에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마음동행상’ 35개 작품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각각 제공된다.

/김수정 기자

국립의전원 남원에 동지… 2029년 개교

복지부 설립준비위, 소재지 확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들어선다. 정부가 2018년 남원을 설립 지역으로 정한 지 8년여 만에 캠퍼스 위치를 확정하면서 2029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의전원 소재지로 결정했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 운영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한다. 2029년 개교 후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학생들

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약물정책, 국제보건 등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공공의료 현장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가 보건으로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과목을 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임상·교육실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전원 졸업생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때는 해당 기간 전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정부는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도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일드프랑스교육청과 MOU 갱신

‘디지털·AI교육’ 협력 확대

서울시교육청과 일드프랑스교육청이 디지털·AI 기반 교육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드프랑스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체결한 업무협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양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생 간 온라

인 및 대면 교류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교육교류 대표단 방문 및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책 분야 정보와 경험 공유 ▲디지털·AI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교사 연수와 교류, 교육 교류 대표단 방문 지원, 상대국 언어교육 등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프랑스 학교와의 국제 공동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과 프랑스 간 국제공동수업에는 서울 초·중·고 1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8개

교는 일드프랑스 소재 학교와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서울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파리에서 유럽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6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13개국에서 참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과 에듀테크 활용법 등을 공유하고 각국의 교육 경험과 수업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많이 사서 싸게” 옛말… 필요한 만큼 사고 부담 줄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소비흐름 변화
‘소용량·초저가’ 트렌드 급부상
식품·유통업계, 제품 라인업 확대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식품 소비에서도 한 번에 지출하는 금액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용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사거나 제품 자체의 절대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식품·유통업계도 이 같은 소비 변화에 맞춰 소용량 제품과 초저가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가격 부담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식품 소비의 기준이 ‘많이 사서 싸게’에서 ‘적게 사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남은 식재료와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려는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한 끼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식품 제조사들은 기존 제품의 용량을 세분화하며 소용량을 하나의 정규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기존 150g·400g 중심의 ‘불



햇반 미니밥 3종.

/CJ제일제당



CU 초저가 자체상표(PB)상품 득템 시리즈.

/BGF리테일

가리스그릭’ 라인업에 80g 소용량 제품 4종을 추가했다. 한 번에 섭취하기 적당한 용량을 앞세워 가격과 섭취량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00g 미만 요거트 시장에서 80g 제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분기 6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8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즉석밥과 정육 등 주요 식품군에서도 소용량 제품이 확대되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은 기존 표준 용량인 210g과 소용량 130g보다 더 작은 110g ‘햇반 미니밥’ 라인업을 선보였다. 닐슨 데이터 기준 즉석

밥 시장에서 130g 이하 소용량 제품의 비중은 2024년 상반기 9%대에서 2026년 상반기 16%대로 높아졌다.

하림도 1인 가구를 겨냥해 용량과 조리 부담을 낮춘 650g ‘구워먹는 닭’을 선보이는 등 제품 규격을 세분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초저가 PB와 소포장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의 초기 지출 부담을 낮추고 있다. CU의 초저가 PB ‘득템시리즈’는 계란·두부·라면 등 생활 필수품을 일반 브랜드(NB)보다 낮은 가격에 선보이며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으로 필수 품목의 가격 부담이 커지

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이 편의점의 주요 상품군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신선식품도 확대되고 있다. GS25는 정육 상품을 200g 단위로 소포장한 ‘4900원 한 끼 양념육’ 3종을 연중 고정가로 선보였다. 한 번에 소비하기 어려운 대용량 정육 대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재료비와 음식물 낭비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비 변화가 단순히 물가 상승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

상을 넘어 식품 구매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편의점이나 실속형 유통 채널에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제조사와 유통사의 상품 구성도 함께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한 번에 섭취하기 적당한 용량과 제품의 성분,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품별 특성과 소비 방식에 맞춰 용량과 성분, 가격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저가 PB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물가 시대의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기획이 식품가 전반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만큼 필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업계는 관련 라인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CJ제일제당, 美 비비고 김밥 매출 59% ↑

판매채널 확대… 현지공략 속도
“비비고 김밥, 대표 K-푸드 육성”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밥이 미국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판매처를 넓히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크로거 입점을 시작으로 판매 채널을 10곳까지 확대하면서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비비고 김밥의 올해 1~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형 유통업체 크로거에 입점한 이후 앨버트슨스, 푸드라이언, 컵, 마이어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현재 비비고 김밥은 미국 내 10개 메인스트림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 점포 수도 크게 늘었다. 비비고 김밥 판매 점포는 지난해 1924개에서 올해 4734개로 145%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김밥이 샌드위치나 부리토처럼



대니 김이 미국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비비고 김밥을 맛보고 있다.

/CJ제일제당

별도 사기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비고 김밥은 식물성 단백질 12g을 함유하고 있어 간편한 식사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현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도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OG Recognizes O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OG’를 ‘오리지널’

과 ‘오리지널 김밥’의 의미로 활용해 한국 김밥의 정체성을 알리는 방식이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약 9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K-푸드 크리에이터 대니 김(Danny Kim)과 협업해 비비고 김밥의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고기’와 ‘매운 불고기’ 2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식재료와 메뉴를 활용한 제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메인스트림 유통채널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크리에이터 협업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국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간편하게 즐기는 식문화가 발달해 있어 김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메인스트림 유통망과 현지 소비자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 비비고 김밥을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대표 K-푸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삼립, 호떡·약과 등 K-디저트 알린다

‘SIAL 파리 2026’ 전시관 운영

삼립이 세계 3대 식품박람회인 ‘SIAL 파리 2026’에 참가해 호떡과 약과 등 K-디저트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비롯해 베이커리·디저트와 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수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삼립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SIAL 파리 2026에 참가한다. 올해 행사에는 130여개국 80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립은 ‘K-Desert Atelier’를 콘셉트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한국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K-디저트의 문화적 특성을 알릴 계획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1974년 출시된 ‘삼립 호떡’을 내세운다. 여기에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한 ‘소프트 치즈케이크’와 ‘미니

보름달’, ‘삼립호빵’, ‘삼립약과’, 크림빵 등을 선보인다. 하이면과 소스, 육가공 제품까지 포함해 총 40여종을 전시하며 베이커리에서 푸드까지 제품군을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업 확대도 본격화한다. 삼립은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약 750억원 수준인 글로벌 매출을 2030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코스트코 등에서 성과를 낸 제품과 유통채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스케일 모델’을 구축해 해외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삼립은 현재 약과·호빵·하이면 등 250여개 제품을 미국과 호주, 홍콩, 유럽 등 5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독일 아누가에 참가해 쌀가루와 콩비지를 활용한 ‘케어스 약과’로 아누가 테이스티노베이션쇼·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홈쇼핑 5일까지 ‘더블 쇼핑어택’

롯데홈쇼핑이 오는 5일까지 적립금, 카드 할인, 경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쇼핑어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 쇼핑 시즌을 맞아 적립금과 경품 혜택을 확대해 진행한다. 2일에는 뷰티, 건강식품 등 대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상품 구매 고객에게 10% 적립금을 2회 지급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도 기존 행사보다 확대해 최대 7% 할인한다.

행사 기간 TV방송에서는 ‘L.SHOW’, ‘영스타일’, ‘요즘쇼핑 유리네’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더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롯데면세점, AI 상품검색 서비스 오픈

면세쇼핑 과정 AI 경험 확대

롯데면세점이 AI 상품검색 서비스를 오픈하고 고객의 면세 쇼핑 과정에서 AI 기반 쇼핑 경험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AI 상품검색’은 고객이 정확한 상품명이나 검색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상황과 취향, 원하는 조건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고객의 의도를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롯데면세점 모바일 앱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단순 키워드 중심의 기존 검색 방식과 달리 고객이 찾고자 하는 상품의 맥락과 목적을 반영해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롯데면세점은 상품 탐색 이후의 쇼핑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안하는 AI 상품추천을 비롯해 상품의 주요 특징과 구매 고객 평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AI 상품정보 요약 및 AI 리뷰 요약 기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AI 상품검색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AI 검색부터 상품 추천, 정보 확인, 리뷰 탐색, 생생형 AI 채널 연계까지 쇼핑 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향후 고객 대상 AI 쇼핑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업무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부문 KCSI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제품군 강화·고객 편의성 개선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패스트푸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KCSI는 국내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로 올해 35년째를 맞았다.

롯데리아는 올해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한 제품군 강화했다. 지난 7월 선보인 ‘리아 두툼새우’는 출시 2주 만에 100만개, 9월 출시한 ‘리아 불고기 레드’는 50만개 판매를 각각 돌파했다. ‘리아 두툼새우’는 목표 판매량의 242%를 달성했다.

고객 참여형 마케팅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했다. 유니클로 ‘UTime!’와 디자인



이혁중 롯데GRS 마케팅부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인증패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공모전을 진행하고, ‘온정돈가스’와 협업한 ‘디지게 매운 돈가스’를 선보였다. 공식 앱 ‘롯데잇츠’는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했으며 UI·UX 개편을 통해 주문과 결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원선 기자

혈액 속 신호로 ‘성숙 심근세포’ 제작… 심장 독성평가 새 길

생명연 손미영·이미옥 연구팀
심근세포 분화율 90% 이상
박동 신호·전기적 특성 강력해져
심근경색 등 세포치료제 개발 기대

국내 연구팀이 성인 심장에 가까운 고품질 심근세포(심장근육세포)를 시험관에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신약 개발 시 과제로 꼽히던 심장 독성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심근경색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1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에 따르면 손미영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소장(UST 생명과학 전공책임교수)·이미옥 박사(UST 생명과학 전공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지질 신호물질이 심근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촉진하는 핵심 신호임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성인 심장에 가까운 기능적 특성을 보이는 고품질 심근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인간만능줄기세포를 심근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태아소혈청(FBS)을 넣었을 때 줄기세포가 심근세포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소장, 유원동 박사, 이미옥 책임연구원(왼쪽부터)이 성인 심장에 가까운 기능적 특성을 보이는 고품질 심근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잘 자란다는 점에 착안하여, 혈청 속 여러 성분 중 생리활성 지질 신호 물질인 S1P와 이를 인식하는 수용체 S1PR1에 주목했다. 인간만능줄기세포에 S1P 또는 S1PR1 선택적 작용제(SEW2871)를 처리한 결과, 90% 이상이 심근세포로 분화했으며, 성숙도와 기능적 특성도 향상됐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 능력이 매

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심장 독성을 정확히 검사하거나 손상된 심장을 치료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의학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최근 인간만능줄기세포(hPSC)를 이용해 시험관에서 심근세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기존 방식으로 만든 심근세포는 ‘어린 아기 세포’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제 어른의 심장처럼 힘차고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세포 주에 따라 분화 효율의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손미영박사연구팀이 만든 심근세포는 어른 심근세포처럼 세포 크기가 커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 마다가 촘촘하게 정렬되었으며, 박동 신호와 전기적 특성이 훨씬 더 규칙적이고 강력해졌다.

또한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Cas9)로 S1PR1 유전자를 제거한 줄기세포는 S1P를 처리해도 심근세포로 제대로 분화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S1P·S1PR1 신호가 심근세포의 분화와 기능적 성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나이가 연구팀은 심근경색에 걸린 실험 동물에 이번 기술로 만든 성숙한 심근세포를 이식했을 때, 손상된 심장의 펌프 기능이 크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이 딱딱하게 변하는 섬유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식된 세포가 심장 조직에 잘 정착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

에서 약물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람과 유사한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가 높다.

연구책임자인 손미영 소장은 “이번 연구는 혈액 속 신호 물질을 활용해 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의 분화 효율과 기능적 성숙도를 동시에 향상시킨 성과”라며, “향후 사람 유래 심장 모델을 활용한 신약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심장 재생의료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7월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연구회(NST) 생명연 전략연구사업 및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올리브영, K-뷰티 신생 브랜드 30곳 발굴

중기부와 동반성장 프로젝트 운영
6주동안 전국 매장서 제품 소개

CJ올리브영이 치열한 유통 환경 속에서 신생 중소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무대까지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자생 체력’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민관 합동 육성 사다리를 놓는다.

CJ올리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동반성장 프로젝트 ‘K-슈퍼마켓 위드영’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전개됐고 전국 주요 올리브영 매장과 글로벌몰을 통해 유망 브랜드가 소비자 접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초기 브랜드가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올해는 규모도 확대했다. 참여 브랜드는 첫째 20개에서 올해 30개사로 늘었다. 또 중기부의 ‘K-수출전략포럼 육성사업’을 거쳐 브랜드 경쟁력을 검증해 선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효용성까지 끌어올렸다.

3기 참여 브랜드는 10월 1일부터 6주간 전국 올리브영 매장 중 23곳에 설치된 ‘올



올리브영 대학로중앙점에 방문한 고객이 ‘올영신상’ 매대에서 쇼핑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영신상’ 구역에서 제품을 소개한다. 이후 올리브영은 고객 반응, 매출,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10개 브랜드를 선별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우수 브랜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출해 판로를 늘리게 된다. 오는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온라인몰, 역지구 창구인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에서 선보여진다. 아울러 올리브영의 자

체 방송 ‘올영라이브’ 편성, 전용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 설계도 이뤄진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K-슈퍼마켓 위드영의 본질은 잠재력 있는 신생 브랜드가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나이가 K뷰티 생태계 전반에 걸친 건강한 선순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한양행, ‘코아시스’서 헬스·뷰티 선택

현대홈쇼핑 편집숍 입점

유한양행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부터 고기능성 스킨케어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고급 헬스&뷰티 제품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선보인다.

유한양행은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에 입점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기반의 다이어트 유산균 ‘원대썬’을 비롯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제를 돕는 ‘당

류락 이지’, ‘유한 생유산균’ 등을 내놓는다.

뷰티 제품으로는 유한양행의 독보적인 제약 노하우를 접목한 스킨케어 브랜드가 매대를 채운다.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 11종, ‘더이유’ 3종 등을 통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고려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 뷰티, 피부 등 소비자 일상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브랜드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고품질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에이지투웨니스 ‘스킨 퍼스트’로 새단장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피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비했다.

애경산업은 오는 11월까지 서울 성수에서 ‘더 에이지투웨니스 하우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하우스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부터 프렙과 파운데이션을 결합한 신제품 ‘스킨 퍼스트 히든 프렙 파운데이션 팩트’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앵토즈마, 북유럽 입찰 잇단 수주

토실리주맙 시장 점유율 85% 유지

셀트리온은 고수의 신규 제품군이 EU 5 국가뿐 아니라 북유럽 중소 국가에서도 잇따라 입찰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앵토즈마’는 북유럽 주요국인 노르웨이에서 국가입찰에 낙찰되며 출시 초기부터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셀트리온 북유럽 법인은 앵토즈마 프리필드시린지(PFS)·오토인젝터(AI) 제형을 올해 초부터 2년간 노르웨이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토실리주맙 시장에서 평균 85%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앵토즈마의 판매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하주사(SC) 제형 중심의 리테일(영양) 시장에서 올해 6월 기준 4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입찰 중심의 정맥주사(IV) 제형 시장에서도 최근 핀란드 동부 지역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전 제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앵토즈마’

형에 걸쳐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앵토즈마의 입찰 성과가 이어졌다. 셀트리온 네덜란드 법인은 현지 7개 대학병원으로 구성된 대형 의약품 구매 조합(IZAAZ)과 근골격계·류마티스 전문병원(SMK)에서 진행된 토실리주맙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해 올해 3월부터 앵토즈마 공급을 시작했다. 여기에 올해 2분기에는 남동부 지역 의약품 구매 조합(ICZON)과 네덜란드 병원 의약품 공동구매 협의체(ZRIG) 입찰까지 추가로 수주했다. 이를 통해 현지 토실리주맙 시장의 약 58%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JW생활건강, 끈적임 줄인 흉터 관리 젤

‘닥터클라로 메디스카젤’ 출시

JW중외제약의 생활건강 전문 계열사 JW생활건강은 외출 전이나 메이크업 직전에도 끈적임 없이 활용 가능한 흉터 관리 제품을 내놓는다. JW생활건강이 ‘닥터클라로 메디스카젤’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등급 의료기기로 국소 하이드로겔 창상 피복재다. 실리콘과 D-판테놀 성분을 처방해 흉터와 아문 상처를 보호해 준다. 수술이나 화상, 외상 등으로 생じた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 등에 쓰인다.

특히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는 겔 제형으로 설계돼 자연 건조 속도가 빠르다. 기존 흉터 연고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던 끈



‘닥터클라로 메디스카젤’ /JW생활건강

적임과 번들거림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흉터는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만큼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도포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일상에 필요한 안심 헬스케어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4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40~16: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20~17:0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I·데이터 입힌 스포츠 후원… SK·현대차, 태극전사 뒷받침

아시안게임 경기력 향상 ‘총력’
SK, AI 분석·현장 지원 확대
현대차, 양궁 맞춤 관리 강화

2026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스포츠 후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현지 맞춤형 지원을 앞세워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4년째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로 펜싱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후원에 자체 개발한 AI 전력분석 시스템 ‘SK T-FAN’을 처음 도입하며 지원 영역을 기술로 확대했다. SKT는 2003년부터 펜싱 분야에 누적 360억원을 지원해왔다.

SKT-FAN은 AI 컴퓨터 비전과 모션 분석 기술을 활용해 경기 영상에서 득실점 장면과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선수 움직임과 상대 전술·공격 패턴 등을 분석한다. 기존 전력분석원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던 작업을 줄이고, 분석 결과를 훈련과 실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T에 따르면 영상 분석 업무를 최대 90%



정익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왼쪽)이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카자키 양궁경기장에서 양궁 대표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SK는 선수단 현지 지원도 강화했다. SKT는 대회 기간 의무 트레이너와 전력분석관을 추가 파견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 분석을 지원했다. 실제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사브르·에페·폴리테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며 금메달 4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최신헌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은 이번 아시안게임 펜싱 대회 기간 내내 일본 현지에서 머무르며 선수들을 직접 챙겼다.

핸드볼에서도 SK의 스포츠 지원이 이

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부터 대한핸드볼협회를 맡아 국내 핸드볼의 저변 확대와 선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이후 세대교체를 위해 회장직을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에게 넘겼으며, 박 사장 역시 대한핸드볼협회 장으로서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했다. 박 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응원을 보냈고, 한국 여자 핸드볼은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양궁 대표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양궁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일본을 찾아 컴파운드 대표 선수와 코치진을 직접 만나 격려했고, 30일에는 오카자키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지켜봤다. 선수들이 경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 인근에 1인 1실 전용 숙소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한국 조리사를 현지에서 파견해 선수별 식단을 지원했다.

훈련 단계부터 현지 환경도 반영했다. 진천선수촌에 실제 오카자키 경기장의 구조와 바람 방향 등을 재현한 훈련 환경을 구축했으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야구 관중의 함성과 응원가 속에서 활을 쏘는 소음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

정 회장은 혼성 단체전 뒤 취재진과 만나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 자체로 영광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컴파운드는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강팀이고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며 “협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과 인프라 협력

대우건설은 이강석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4박5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현대해상, 50주년 기념 행사

현대해상은 일본지사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1976년 국내 손해보험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진출한 현대해상 일본지사는 지난 50년간 현지 고객 및 파트너와 신뢰를 쌓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 일본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인 유일한 한국 손해보험사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해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9월 30일 진행한 ‘2026 부모님 초청 행사’에 참석한 양사 가족들이 정비격납고를 견학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통합 출범 앞두고 가족과 화합 다져

대한항공·아시아나, 임직원 가족 초청
객실훈련센터·정비격납고 등 체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연말 통합을 앞두고 양사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임직원 및 부모님 총 240명을 대상으로 ‘2026 부모님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1차를 시작으로 10월 20일과 11월 12일 등 회차당 80명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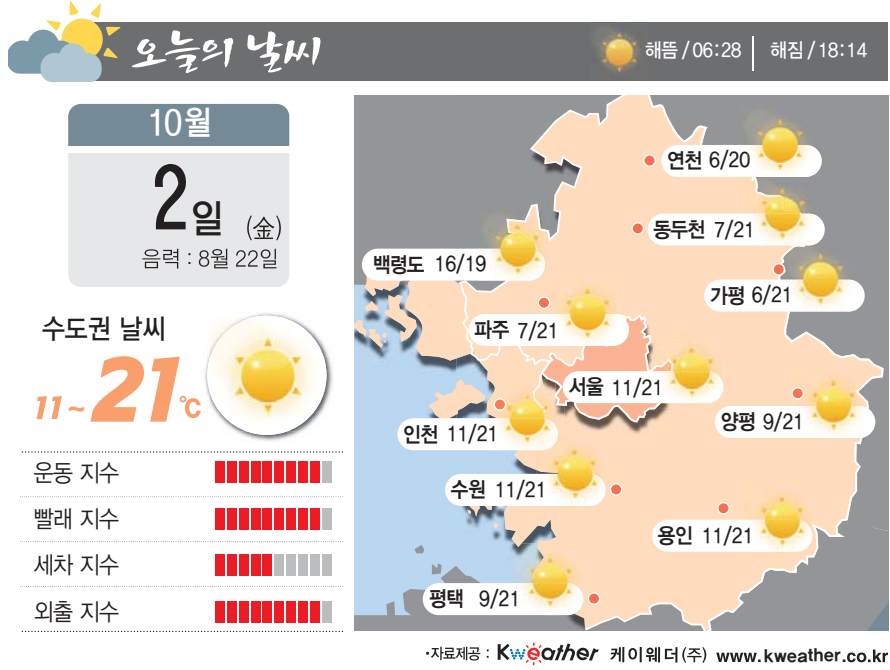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객실훈련센터, 운항훈련원, 정비격납고 등 회사의 주요 시설을 부

모님이 직접 체험하며 자녀의 직장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도 함께 참여해 양사 통합의 의미를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양사 임직원과 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소속감을 높이고, 통합을 향한 유대감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양성운 기자



한화문화재단, 뉴욕서 韓 신진작가 그룹전

아트 오마이와 협업 전시
작가·필자 5인 공동 참여

한화문화재단이 뉴욕에서 한국 신진 미술작가와 해외 필자의 협업 전시를 개최하며 신진작가의 해외 활동을 지원한다.

한화문화재단은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뉴욕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에서 신진작가 그룹전 ‘맥거핀(MacGuffin)’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뉴욕 예술가 레지던시 ‘아트 오마이’와 협력해 마련했다. 강동호, 고요손, 장종완, 김지선, 이안 하 등 한국

미술작가 5인이 작품을 선보이고 아트 오마이 문학 레지던시 출신 필자 5인이 각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한 글을 함께 공개한다. 개막 행사에서는 고요손 작가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작가와 필자가 교류하는 공개 낭독회와 토크 프로그램도 열린다.

재단은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아트 오마이에 한국 신진작가를 파견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 과정에서 쌓은 협력 관계를 스페이스 제로원의 전시와 연계해 작가들의 국제 교류 기회를 넓힌 것이다. /원관희 기자 wkh@



소진공, 소상공인 생명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단위의 생명안전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협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엔컴퍼니그룹

이동약자 위한 ‘차량나눔’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사회복지시설에 전기 승합차와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을 지원해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6 차량나눔’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초록우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이동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초록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CJ대한통운, 지역 청년 물류인재로 키운다

지역 연고 청년 우선 선발

CJ대한통운이 지역 청년을 물류 전문 인재로 육성하는 ‘물류공채’를 본격화한다. CJ대한통운은 전국 물류거점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물류공채’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 물류

거점의 운영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전국 물류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물류공채’로 개편하고 상·하반기 정기 채용 체계로 전환했다. 물류공채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지역 연고가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진그룹, 3억 걸음 모아 자립준비청년 지원

이달 한 달간 ‘가치걸음’ 진행

유진그룹이 일상 속 작은 걸음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유진그룹은 10월 한 달간 걸음 기부 캠페인 ‘유진이랑 가치걸음’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진이랑 가치걸음’은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걷는 걸음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 유진그룹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걸음을 나눔 활동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걸음 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의 걸음을 모아 총 3억 걸음 달성을 목표로 하며, 목표 달성 시 유진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인사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혁 ◇상임이사 △장진업 △김현

◆홈쇼핑 (승진) ◇상무급 △영업본부장 이성훈 △방송본부장 한복현 △중기지원본부장 이현승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정치팀 부장 이해완 △정치경제부 경제팀 부장 박기락

부음 ▲박민출씨 별세, 박병한(전 YTN 선임기자)씨 부친상=9월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이 정 혁

西村브리핑

내년 4월부터 은행에 불일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잠깐 창구에 들르는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권 노사가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폐점 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다. 하루 창구 운영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금융 노조는 이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성과로 평가한다. 오전 9시 개점을 준비하려면 직원들이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점이다. 벌써부터 ‘은행원이 상전(上典)이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의 사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은행 점포는 계속 줄고 있다.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출장소는 2021년 말 6093 곳에서 지난해 말 5514곳으로 4년 새 579곳이 사라졌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890곳에 이른다. ATM도 2020년 말 3만

7537대에서 지난해 6월 2만9810대로 20% 넘게 줄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할 장소가 줄어든 데 이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짧아지는 셈이다.

‘모바일뱅킹 시대에 30분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단순 송금이나 이체라면 그렇다. 그러나 대출, 상속, 외환, 각종 증명서와 사고신고 처럼 여전히 창구를 찾아야 하는 업무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은행 창구는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 인프라다.

직장인에게도 30분은 작지 않다. 현재도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닫는 은행을 이용하려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감소로 한 곳에 고객이 몰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여기서 개점시간까지 늦추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 비용은 더 커진다.

금요일에는 이른바 ‘라스트콜’도 도입된다. 오후 4시 폐점은 유지하지만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제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해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었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은행원들의 처우가 열악해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다. 여기에 이번 노사 잠정 합의에는 총액 임금 3% 인상과 자율출근제 신설까지 포함됐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은 강화되는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노동시간을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고객 이용시간은 유지할 방법부터 찾으라는 것이다. 교대 근무를 확대하고 탄력 점포와 공동 점포를 늘릴 수 있다. 우체국 업무 제휴와 이동 점포, ATM 기능 개선 등 대체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는 공급자의 편의만으로 설계할 수 없다. 은행 문을 여는 시간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은행원의 ‘위라벨’을 위해 은행 소비자의 ‘은행 접근권’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영업시간을 줄이기 전에 고객의 불편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고민하는 배려가 빠진 것부터 여전히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

/linh@metroseoul.co.kr

모아주택 ‘1호’… 이제 진짜 시험대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는 ‘1호’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화한 뒤 처음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최근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2호, 3호, 100호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에서 본 1호는 모아주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소방차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좁고 가파른 골목과 낡은 연립주택 자리에 최고 15층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섰다. 기존 99가구는 215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작게 묶어 빠르게 정비한다는 구상이 실

제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관건은 그다음이다. 첫 사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과제는 이를 2호, 3호, 100호로 이어가는 일이다.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내건 목표는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마친 모아주택은 168 곳이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14곳, 2200가구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곳도 27곳, 3800가구에 그친다. 계획을 실제 공사로 연결하는 속도가 앞으로의 관건인 셈이다.

속도를 강조해온 모아주택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더디게 할 변수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다. 후보지 선정 이후 기획부동산이 개인 소유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파는 식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날수록 주민 동의와 이해관계 조정은 복잡해진다.

1호 현장은 또 다른 속제도 보여줬다. 센트

럴아이파크 14층 통창에서는 한강과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저층주택의 지붕들이 이어졌다. 단지를 벗어나면 좁은 골목과 낡은 빌라들도 남아 있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사업이다. 결국 개별 단지의 성공을 주변 정비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다음 시험대다.

첫 입주 단지는 분명 의미 있는 이정표다. 하지만 첫 사례가 나왔다는 것과 제도가 안착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모아주택이 내세운 가장 큰 경쟁력이 ‘속도’였다면 성적표 역시 실제 착공과 입주로 매겨져야 한다.

서울시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최초’가 아니다. 첫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호’ 뒤에 긴 공백이 생긴다면 모아주택 1호는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다. /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8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큰 법입니다. 60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7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84년생 욕심을 내게 되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소

49년생 사소한 일은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1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3년생 재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5년생 나아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로랑서

50년생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62년생 금전운이 비로소 돌아옵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도끼

51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63년생 권력과 같은 힘에는 이렇듯하지 마세요. 7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87년생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조

52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64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세요. 88년생 세상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뱀

53년생 성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65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77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8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남기고 즐거움도 크리라 봅니다.



말

54년생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6년생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7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90년생 세상에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

55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7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79년생 자신을 아꼈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거짓말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68년생 바라는 것이 매우 잘 풀려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80년생 오늘 하루 유익한 날이 됩니다. 92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닭

57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69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8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93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0년생 신제품 개발을 궁리하기에 최적인 하루입니다. 82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었다면 조심하세요.



돼지

59년생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 71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3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95년생 유행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소박한 현인



현인(賢人), 현실을 떠나 출가하여 고요한 수행을 통하여야만 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수행의 정밀한 경지를 소망한다면 전적인 집중을 위해 출가환경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수행이 먼 것만도 아니다.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며 유지해나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굳이 수행 티를 낼 이유도 없겠지만 세계적 부자인 워런 버핏이나 찰스 멩거는 현인이란 소릴 듣는다. 절대적 세계적 부자 칭호를 듣는 이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말이다. 손에 손잡히는 부자 중에서도 전 재산을 기부하고 생을 마친 이들도 종종 있지만 그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따서 ‘오마하의 현인’ 또는 ‘페서디나의 현인’이라고 칭해진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즐기며 삶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이 있었으며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총 1조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일군 찰리 멩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2023년 11월에 만 100세를 한 달 남기고 인생의 긴 여정을 마쳤다. 멩거보다도 6살 아래인 버핏도 지금은 97세가 되었으니 수명 복은 타고난 사람들이다. 특기할 것은 그들은 건강한 식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 애호가들이었다. 콜라와 햄버거를 즐기는 버핏 못지않게 찰리 멩거 역시 평상시에도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즐겼으며 특히 멩거는 스팸 볶음밥을 좋아했었는데, 마지막 배달음식으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다는 사실도 재밌다. 심지어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도 가족들이 침울한 분위기에 빠지자 다이어트 콜라가 장수의 원인이었다며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아, 다시 86살이 되고 싶네요.”라고 털어놓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시점을 86세로 복기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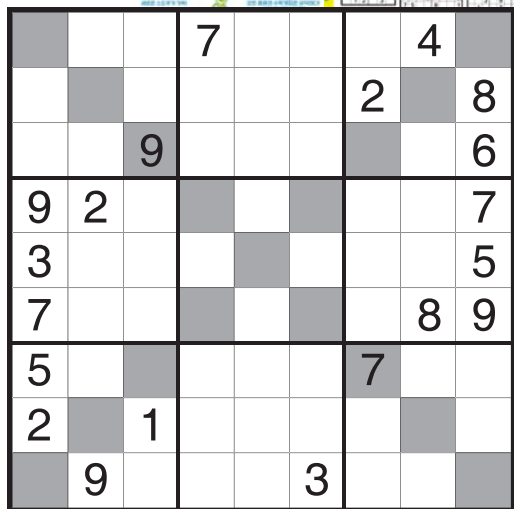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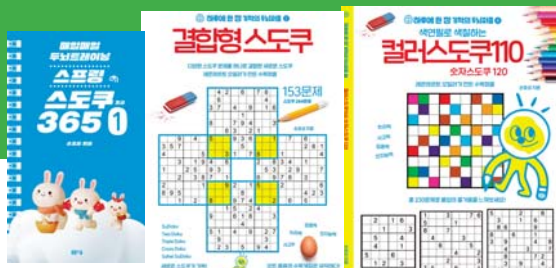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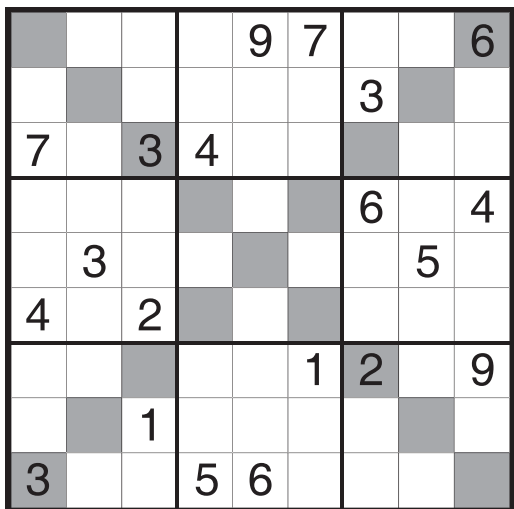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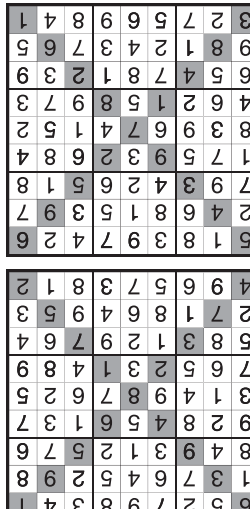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삼성 ‘이건희 컬렉션’, 런던서 韓-英 문화·경제 가교 역할

삼성, 런던 영국박물관서 특별전
문화·산업 잇는 ‘민간외교’ 주목

이재용·홍라희 등 삼성家 총출동
문화유산 보존·나눔 철학 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감사 인사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주요 인사들이 영국 런던에 총출동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평생 수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특별전 개막을 계기로 영국 왕실과 정·관계, 문화·학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의 해외 확산을 넘어 한·영 간 교류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넓히는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특별전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 개막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영국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영국박물관에서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갈라 디너에 앞선 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월 30일(현지시간) KH컬렉션 순회전 리셉션을 찾은 앤 공주 등을 맞이하고 있다.

셉션에는 영국 왕실의 앤 공주가 자리했으며, 갈라 디너에는 영국 정·관계와 글로벌 기업, 문화계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화와 산업을 연결하는 ‘민간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카이 베르만 머크 CEO, 안드레아스 페허자이스 CEO, 패트릭 반데나멜레 아이맥(I-MEC) CEO 등 삼성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핵심 파트너들이 참석했다. 한국 문화유산을 매개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진과 교류하며 향후 사업 협력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정·관계에서는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과 카니슈카 나라얀 AI 장관, 올리버 다우든 전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도 영국박물관과 테이트 모던, V&A 박물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재용 회장은 갈라 디너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영 간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한국과 영국은 140여 년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박물관에서 열린 KH컬렉션 순회전 갈라 디너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 마이크 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역시 영국을 유럽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부터 이건희 선대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유산 보존과 나눔의 철학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가족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번 전시가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 열린 해외 순회전에는 총 19만5000여 명

이 관람했다. 런던 전시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경제 교류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지 오스본 영국박물관 이사회 의장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기여한 이건희 선대회장과 가족들의 헌신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성윤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배성민 소믈리에 “와인, 왜·지금·여기”... 가을 꽃게 만난 이노피아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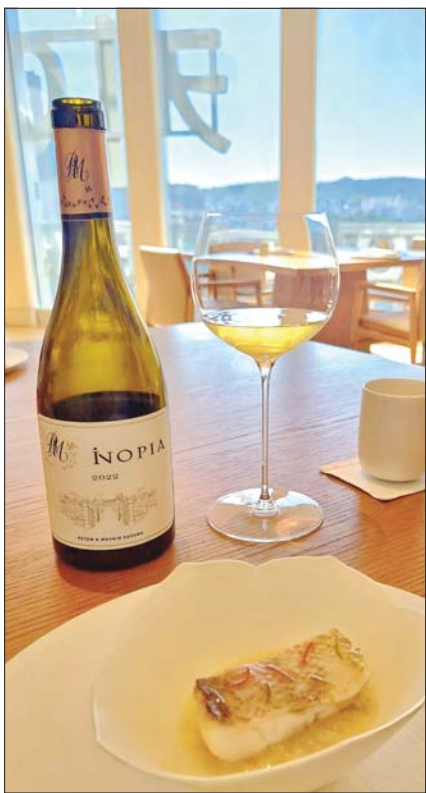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43

“왜 이곳에서, 이 와인을 마셔야 하는가.” 가격을 완전히 빼놓고 생각할 순 없겠지만 결국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소믈리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고객에게 가장 가치있는 한 잔을 찾아줘야 하니 말이다.

배성민 한화푸드테크 총괄 소믈리에(사진)는 “과거에는 유명한 산지나 와인너리, 높은 가격 자체가 좋은 와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고객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취향과 지불할 가격을 스스로 판단한다”며 “최근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인 소비가 ‘정교’해졌다”고 전했다.

식음료(F&B)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사실 배 소믈리에가 와인업계에서 이름을 날린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와인 좀 안다는 수준의 WSET 레벨2를 딴 게 4년 전인데 같은해 WSET 레벨3에 이어 프랑스 와인 전문가 인증 과정인 FWS 등 상급 자격을 줄줄이 갖추더니 지난해에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 4위, 그리고는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했다.

처음부터 와인만 바라보고 소믈리에가 됐다고보다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와인을 접했고, 음식 뿐 아니라 역사와 지리, 문화, 사람까지 연결되는 와인의 매력에 빠졌다. 마쉴린 2스타 레스토랑인 알라프리마에서 헤드 소믈리에를 거쳐 지금은 한화푸드테크가 운영하는 ‘더 플라자 다이닝’의 총괄 소믈리에를 맡고 있다.

더 플라자 다이닝 자체가 F&B 플랫폼



▲배성민 한화푸드테크 총괄 소믈리에가 프랑스 론 지역 화이트 와인인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블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사달의 가을 메뉴 ‘꽃게살을 곁들인 옥돔’과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블랑’ 페어링. /안상미 기자

개념이라 다른 업장도 있지만 배 소믈리에 입장에서 한식 파인 다이닝인 아사달이 가장 주력이다. 오픈 준비과정부터 참여해 1100종의 와인 리스트를 직접 짰 것은 물론 계절마다 변화하는 코스에 맞춰 와인을 선보이는 ‘시그니처 페어링’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배 소믈리에에는 “아사달은 고조선의 첫 도읍지이자 ‘아침의 땅’이라는 이름 처럼 한국의 뿌리깊은 미식 유산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낸다”며 “음식과 와인, 그 안

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마치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아사달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셰프와 배 소믈리에의 환상 궁합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미 이달 말까지 아사달 예약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소믈리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매출 대비 주류의 비중도 레스토랑 평균치를 훌쩍 넘겼다.

음식과 와인 페어링(둘을 짝짓다·어울림·프랑스어로는 마리아주)의 기본 원칙은 자연스러움이다.

그는 “단순히 향과 맛의 조화를 넘어와인과 요리의 무게감과 온도감, 질감이 서로 잘 맞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며 “이와 함께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인 페어링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사달의 가을 대표 페어링으로 ‘꽃게살을 곁들인 옥돔’ 요리와 프랑스 론 지역의 화이트 와인인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블랑’을 꼽았다. 사우마 부부가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정상급 생산자이지만 막상 그르니슈 블랑 품종은 낯설 수 있다. 블렌딩에 들어간 부르블랑이나 루산느, 마르산느도 마찬가지다.

배 소믈리에에는 “그르니슈 블랑은 볼륨과 질감을 만들고, 루산느와 마르산느 등이 과실과 꽃, 허브의 다채로운 풍미를 더해준다”며 “이노피아블랑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갖추면서 다양한 음식과 연결할 수 있는 풍미의 접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갑각류를 연상시키는 옥돔의 은은한 풍미와 꽃게의 달큰한 감칠맛은 이노피아블랑의 풍부한 과실, 유연한 질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고 덧붙였다.

배 소믈리에에는 이노피아블랑과는 봄이라면 백합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에 미나리를 곁들인 쥘통, 여름은 초계탕, 겨울은 숯불에 구운 대게 요리를 떠올렸다.

그는 “같은 와인도 계절과 요리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페어링의 묘미”라고 전했다.

이제 배 소믈리에가 방송하는 페어링 토크이다.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레스토랑 매뉴가 아닌 편한 집밥과도 시도해볼 수 있다.

배 소믈리에에는 “한식이나 양식이라는 큰 범주보다는 개별 요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음식과 와인이 서로 한쪽을 압도하지 않도록 무게감을 맞추는 것이 첫번째, 다음은 음식의 주재료나 소스의 색과 와인의 색을 비슷하게 맞춰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재료의 풍미와 조리 강도가 색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페어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두가지만 고려해도 와인 페어링을 실패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추가 공격할지, 합의할지 곧 결정” /사진 뉴시스

▲유엔사무총장, 올 상반기 3000명 죽인 아이티 갱단 공격에 비난성명

▲北·러, 학위 상호 인정 협정 체결...대학 총장 포럼도 개최

▲호르무즈 하루 972만배럴 다시 흐른다...‘이란 해협 카드’ 약해지나

▲드디어 최상위 AI ‘제미니4’ 공개한 구글...일반 접근은 제한

▲일본은행 9월 금리회의서 물가 경계감...“10월도 인상 가능성”



필요한 만큼 산다
고물가에
소비흐름 변화
L1



Life

혈액 속 신호로
성숙 심근세포 제작
독성평가 새 길
L2



깊은 녹음 속 조형이 남긴 획... 자연과 예술 엮은 감성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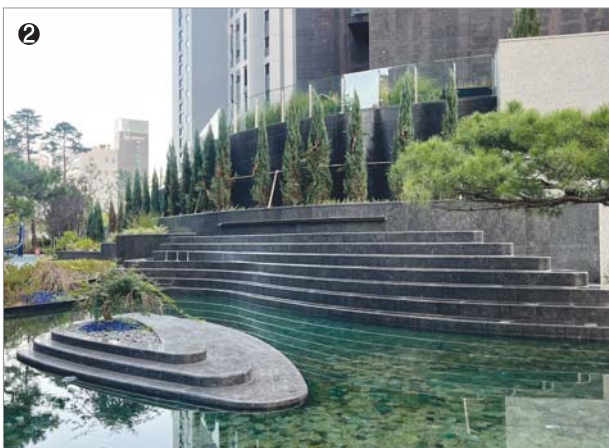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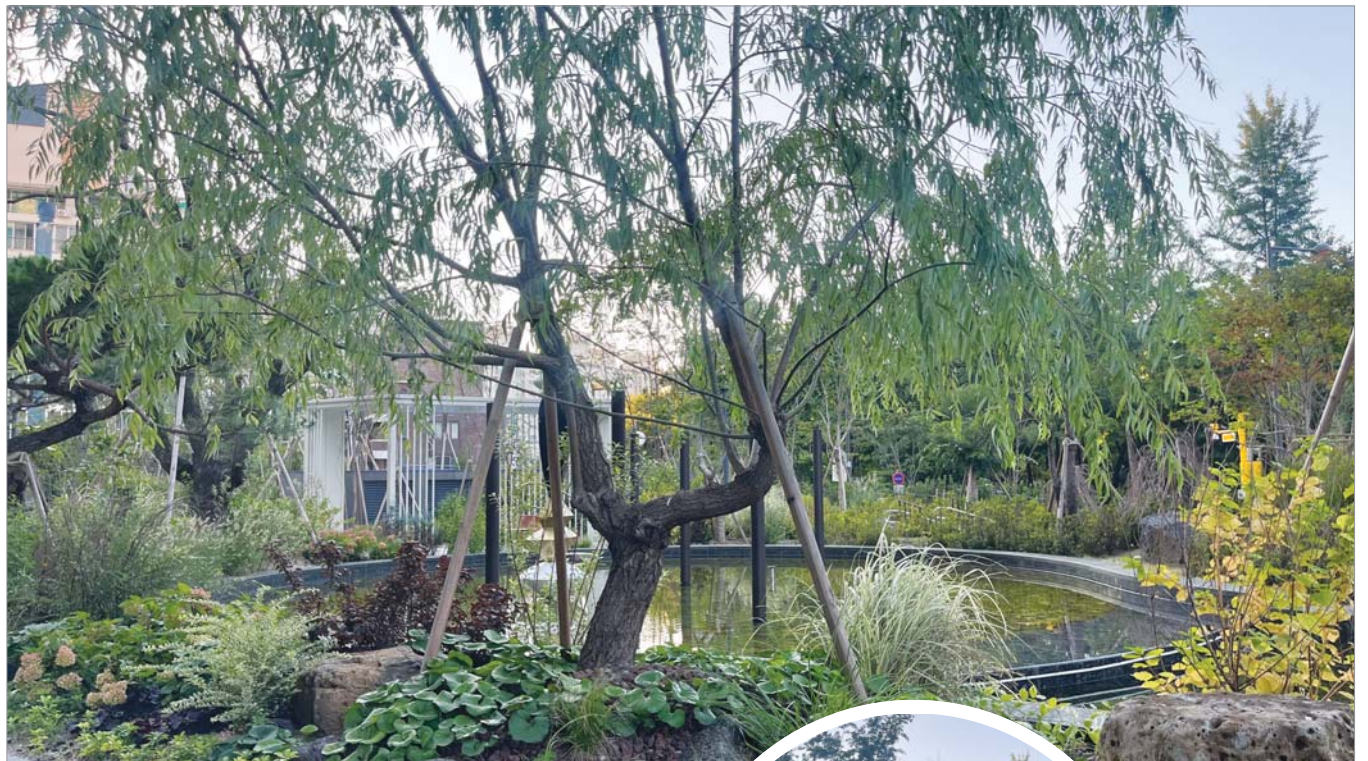
천호뉴타운 재개발 535가구 단지
도보 거리 천호공원·한강 ‘공세권’

깊은 숲속 연상시키는 수목 배치해
겹겹이 쌓인 자유로운 녹음 속 연못
곡선·수직의 조형물로 균형 맞춰

주차장 램프구간 활용한 계단형 쉼터
에메랄드빛 유리식 깔린 수경시설도



① 천호공원과 연결된 단지 내부 산책로.
② 단지 내 작은 연못과 계단식 수경시설. 반복되는 단차와 곡선형 구조가 입체감을 만든다.
③ 단지 내 휴식공간. 흰색 세로 프레임을 반복해 개방감을 살렸다.
/성채리 기자



단지 중심부에 조성된 연못을 수목이 뽕뽕하게 감싸고 있다. 연못 내부에는 수직 기둥과 금빛·흰색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 강동구는 강남·잠실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한적한 주거 분위기를 갖췄다. 지하철과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천호동도 큰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결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나와 북쪽이든 로데오거리 상권을 따라 걸으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이 보인다.

DL이앤씨가 시공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은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115㎡ 총 53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됐다.

단지는 천호뉴타운의 마지막 재개발 단지로, 천호동 중심 생활권에 자리한다. 교통은 천호역을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있는 천호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광화문 등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거나 잠실·강남권에 접근하기도 쉽다. 특히 역으로 향하는 길에 상권이 발달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좋다. 천호역 주변에는 현대백화점과 아울렛을 비롯해 대형마트, 다이소, 영화관, 병원 등 생활인프라가 모여 있다.

또 다른 입지 장점은 공원을 가까이 둔 ‘공세권’이라는 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천호공원이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건지 헛갈릴 정도로 딱 붙어 있다. 천호공원에서는 산책로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광나루 한강공원도 단지에서 약 600m 거리다. 걸어서 10분이면 한강에 닿는 한강 생활권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부분은 통학 동선이 다. 단지에서 강동초등학교 방향으로 갈 때는 천호공원 안쪽 길을 이용할 수 있다. 위험한 차도를 피해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다.

천호동 자체는 학군 경쟁력이 약한 편이지만 고덕·방이권 대형 학원 서들을 이용하는 학부모도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피트니스와 GX룸,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키즈라운지와 독서공간, 라운지 카페·작은도서관,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됐다.

단지 안쪽에서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큰 연못과 이를 둘러싼 녹음이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키가 다른 나무와 풀이 뽕뽕하게 자라 있다. 깊은 숲속에 연못이 보일 듯 말 듯 숨겨진 모습이다.

연못 안에는 길쭉한 기둥 여러 개가 수직으로 솟아 있다. 중심에는 검은색과 흰색, 금빛 요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조형물이 있다. 박성하 작가의 ‘프레스티 베일(Prestige Vale)’이란 작품이다. 수면 위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통해 물과 조형물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구현했다. 시간의 흐름을 활용해 자연과 예술이 결합된 감각적인 풍경을 완성했다.

단지의 전반적인 조경은 ‘정갈하게 다듬은 정원’보다는 ‘거친 야생의 숲’에 가깝다. 대신 연못의 매끈한 곡선과 수직으로 세운 조형물, 수로의 선을 또렷하게 잡아 자연과 인공적인 구조물 사이 균형을 맞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지점은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을 활용한 공간이다. 기능시설로만 남을 수 있는 구조물을 계단과 쉼터로 유틸리티 있게 풀어냈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계단 사이에는 목재 데크가 있어 입주민이 앉아 쉴 수 있다. 계단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연못을 감싸는 벽면 역시 계단처럼 층층이 반복된다. 등고선처럼 비슷한 모양의 도형이 점점 커지며 반복되는 형태다.

수경시설 바닥에는 에메랄드빛 유리석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수면 아래 녹색빛이 겹치면서 작은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낸다. 물이 빠진 계절에도 유리석 자체가 물빛을 연상시켜 계절에 따른 공백을 줄여준다. 반짝이는 바닥과 주변의 소나무가 어우러지며 정갈하면서도 청량한 인상을 만든다.

이 단지의 놀이터는 특히 조형성이 뚜렷하다. 파란색 놀이시설은 굽은 곡선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고 바닥은 파도처럼 디자인했다. 철제 프레임이 길게 뻗다가 끝부분에서 휘어지는 역동적인 시설도 있다. 단지 곳곳의 쉼터도 가느다란 선을 나열하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뿜는다.

수풀과 나무는 거칠고 자유롭게 배치했지만, 연못과 계단, 놀이터 등 시설물에서 직선과 곡선을 반복해 통일감을 준 점이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의 조경 특징이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14세’ 강연서, 박정윤 꺾고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 銅
▲김하성, WC 2차전서 1볼넷 1득점...애틀랜타는 연장 끝 패배
/사진 뉴스스

▲‘또 선발 제외’ 41세 호날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서 전격 이탈
▲창덕궁 후원서 느끼는 ‘책의 향기’...7~18일 선한재 특별 개방

▲BTS RM 특별전·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에 ‘뭇즈’ 뜬다
▲국종박·美 클리블랜드미술관, ‘지옥의 시왕’ 선보인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최고령 마라토너?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입니다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50대 중반, 뒤늦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달려온 끝에
만 71세의 나이로 풀코스 마라톤
70대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으니까요

나이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가는
신행철 마라토너의 빛나는 질주를 응원하며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골든라이프에
KB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세계를 휩쓴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오신
인생의 선배님들께
KB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KB 금융그룹**